

제 6 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수상작품집
고맙습니다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775-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2021. 11. 23
발행인 이제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RS기획
디자인 RS기획
인쇄 (주)더울림코퍼레이션
ISBN 978-89-85648-75-2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218편 중 45편을 선정하여 원작자(아동)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 각 원고는 원작자(아동)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개인적인 내용은 각색 및 생략 하였습니다.
 - 편지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이름)은 2021년 6월 공모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일부 아동은 가명 처리 하였습니다.
 - 본 수상작품집은 초록우산 감사편지 홈페이지(www.thanksletter.com)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발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8
심사평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심사평 고도원	10
엄마 손잡고 제주도에 와야지	14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18
쫄그만 아이에게 좋은 마음의 씨앗	22
이집트라는 국적을 가진 너희 가족	28
신! 나! 게! 사! 랑! 해! 즐! 겁! 게!	34
그 때 잘했다고 부디 안아주길 바라요.	42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48
고요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어	54
값비싼 다이아몬드	60
선생님이란 빛나는 별	68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	72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78
빛깔고운 꽃과 향기로운 마음	80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86
옥무지개처럼 언제나 예쁜 빛	92
그 누구보다 멋진 아들이 되어 올게	96
장미 한 송이	104
꼭 행복하게 살게요	110
100억개도 더한 많은 감사	114

목차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좋았었어요	118
개그우먼보다 더 웃기게 나를 웃겨주는 한 줄기 빛	120
제가 할아버지의 델피늄 꽃이 되어드릴게요	124
고모 영원한 나의 맑음이 되어주세요	128
꼬마 시인 가영	132
제 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4
건강한 다리로 공원 같이 산책해요	140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144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	150
매일 아침 신호등의 할머니	154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뿐인 친구	158
오래도록 제 옆에서 빛나주세요	162
그래도 난 잘 지내고 있어	166
텔레파시로 제 마음을 전할게요	170
어두운 바다에서 혼자 항해를 하고 있는 배	174
선생님은 저의 보조배터리예요	178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햇빛	182
우산을 씌워주시는데 부모님의 어깨	186
엄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190
사계절 나의 등하교를 책임져주던 선생님	192
어두운 밤에 무너지려고 할 때 한줄기의 빛	194
할머니의 손길과 따뜻한 품속	196
먼 훗날 또 함께 그림 그려요	202
가장 많이 고마운 사람	204
난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206
내 기억들과 추억들은 다 아름다웠어	208

발 간 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매년 펼쳐온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의 여섯 번째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아동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서로의 존중과 배려를 통한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전국의 교육청, EBS, 문화일보와 함께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작한 공모전은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해 올해는 역대 최대 수량인 548,949통의 감사편지가 접수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인성함양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사편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전국 각지 7,365개 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속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우리 아이들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님, 부모님, 친구를 비롯해 주변의 감사한 이들을 찾아 따듯한 마음을 전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편지를 통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경험을 체감하며 한 뼘 더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심사평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의 결정체가 수시로 바뀌다는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같은 물인데도 “이 고약한 놈아, 넌 사라져야돼” 이렇게 악담을 하면 바로 물의 결정체가 변하면서 보기 흉하게 깨져버리고 “사랑해, 감사해”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체도 아름답고 균형잡힌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품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과 말로 표현해보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매년 진행하는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족, 형제, 선생님, 친구 가까운 사이부터 경비원 아저씨,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상담 센터 선생님, 수녀님, 택배 아저씨... 올해 참여한 편지를 읽으며 정화되고 희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감사해야 할 일과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써보는 일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큰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 이별, 좌절의 순간을 감사로 써 본 순간은 아이와 함께 큰 나무로 자라 앞으로 삶이 힘들 때마다 그늘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올해까지 3년 째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그 희망이 함께 자라는 시간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참여하는 편지가 올해 더욱 많아진 것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성장하는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친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야. 잊지 마.

아빠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저도 친구들을 배려하고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빠! 아빠가 있어 저희 모든 가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때 잘했다고
부디 안아주길 바라요.

새뜸중학교 김민영(가명)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원덕중학교 3학년 윤서아

고요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어

링크하우스부천스쿨 12학년 마수연

값비싼
다이아몬드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영원

선생님이란
빛나는 별

가은고등학교 3학년 최아현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

원주의료고등학교 1학년 박주영

엄마 손잡고

제주도에 와야지

여수진남초등학교 6학년 김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리남초등학교 6학년 안로하갈

또그만 아이에게
좋은 마음의 씨앗

동곡초등학교 6학년 오은채

이집트라는 국적을 가진
너희 가족

이리남초등학교 6학년 김마린

신! 나! 게! 새! 랑! 해!
즐! 겁! 게!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6학년 임현빈

엄마 손잡고 제주도에 와야지

To. 나만의 트로트 여신 '김미애' 엄마 ♡

엄마 고마워!

나를 위해 뇌졸중이라는 괴롭고 힘든 병을 건더줘서 고마워!

엄마가 식당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나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몇 주 후 오빠와 함께 병원으로 엄마를 보러 갔을 때 속으로 '내가 울면 엄마가 더 슬플 테니 절대 울지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들어갔었어. 엄마가 그때 나를 못 알아보는걸 보고선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여름인데 손에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려고 해서 간호사님들이 손에 장갑을 끼고 침대에 고정해 두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엄마한테 못해줬던 일만 생각나고 혹시 엄마가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

그런데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가니까 엄마가 날 알아보고 "내 딸 은아!"라고 불렀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렇게 몇 달 후 내가 삼혜원이라는 보육원에 입소했었지. 내가 삼혜원에 들어올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네.

그 사이 재활병원에서 엄마가 이제 다시 조금씩 걷게 되고 손도 예전보다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 ^^

삼혜원에서 몇 년 전에 다 같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엄마랑 손잡고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면 어떨까?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손잡고 제주도에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꼭 손잡고 아빠랑도 같이 제주도 가자!

엄마! 여전히 트로트여신이지?

엄마 가수 장윤정 좋아하고 트로트 노래도 진짜 잘 부르는데 노래 실력 여전히?

엄마!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해외여행 내가 꼭 시켜줄 테니 재활치료

잘 받자!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처럼 엄마한테 은혜깊은 딸
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내 옆에 있어줄 거지?

From.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은 올림

김은 | 여수진남초등학교 6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To.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저 아빠의 첫째 딸 하갈이에요!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빠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빠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저와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저 뿐 아니라 둘째 해미, 셋째 미두, 그리고 올해 태어난 막내까지... 우리 네 명을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빠께서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잘 사주시고 바쁘시지만 저희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는데... 항상 바쁘신 아빠를 보면 정말 힘드시실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제가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아빠한테 화내고 동생들이랑 싸우기만 해서 속상하셨죠? 힘든신 아빠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니 더더욱 아빠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니 아빠께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오실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 혼자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아빠를 못 봐서 항상 아빠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몇 년이 흘러 아빠께서 공부를 마치고 저희 가족이 모두 모였던 날 기억하세요? 그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잖아요. 모두 아빠 덕분이예요.

아빠! 사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태어나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아랍어와는 너무 다르고 전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빠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아빠가 공부하셨던 방법으로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었잖아요. 지금은 아빠 덕분에 한글이 쉬워졌어요. 오히려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를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빠 정말 감사드려요.

요즘 아빠께서 새로운 도전으로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아빠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아빠는 모르시죠? 아빠를 보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어요. 이집트에서와는 다르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오해가 쌓여 힘들었던 일 기억나세요? 방에만 앉아있던 저에게 아빠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해주셨죠. 아빠께서 홀로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일을 말씀해주시면서 저를 이해해주실 때 제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어요. 아빠의 코치를 받으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지난 해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제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올해는 친구들과 가까워져서 학교생활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하갈아, 친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야. 잊지 마.” 아빠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저도 친구들을 배려하고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빠! 아빠가 있어 저희 모든 가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를 바르게 성장시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아빠! 아빠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아껴주시는 아빠!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는 큰딸이 될게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21년 5월 8일
하갈 올림

조그만 아이에게 좋은 마음의 씨앗

To. 영원한 선생님, 권칠중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동곡 초등학교 6학년 오은채 입니다.

편지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가만히 교장 선생님과 추억을 떠올려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보물 상자에 담아두었던 교장 선생님과 추억을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추억과 가르침을 주신 좋은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낮선 학교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신 건 바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동곡 초등학교에 입학한 걸 축하한다” 하시며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던 선생님은, 그 뒤로도 거의 매일을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아주시며 “사랑합니다” 하시고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기도 하셨지요? 가끔은 장난치는 아이들도 꼭 안아주셨구요. 그래서 전, 교장 선생님 덕분에 낯설기만 하던 학교가 정말 집처럼 따뜻한 곳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학교의 제일 큰 어른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허물없이 다가

와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 다른 선생님들도 하 나도 무섭지 않고 다정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제가 2학년 때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이 방학식 날 시청각실에서 제 글을 읽게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너무 떨려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불안해하던 제가 교장 선생님께서 너의 예쁜 마음을 학교 친구들에게 들려주자며 다독여 주셔서 용기를 냈고 무사히 잘 해 낼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교장 선생님은 저희에게 마음을 선물해 주셨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학교 화단에서 꽃을 꺾고 장난치던 아이들에게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특히 제가 놀랐던 건 겸손하고 검소하신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학교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조그만 경차 한 대가 못 빠져 나오는데 그걸 보신 학교 기사님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런데 경차 운전자가 그냥 가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기사님께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는데... 세상에, 그게 바로 교장선생님이셨던 거 있죠? 교장 선생님이면 당연히 엄청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시고 인사하실 때도 조금만 고개를 숙이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순간 교장 선생님께 겸손함과 겸손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답니다.

권철중 교장 선생님! 교문 앞에서 늘 인사해주시던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한동안 볼 수 없어서 의아해 했었는데, 상을 받으러 교장실에 간 순간 저는 엄청 놀라고 말았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마르고 야위어 보이셨거든요. 정말 많이 아프신가보다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시고는 “너는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글에는 말처럼 힘이 있으니 앞으로도 예쁜 글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렴.”하고 웃어주시며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셔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희 반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썼던 거 기억하세요? 교장 선

생님 건강 되찾으시라고 응원 편지를 쓰고 교장실 앞에 붙여두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는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담임선생님께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교장 선생님과 이별이 찾아왔어요. 교장 공모제를 통한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동곡초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기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아프셔서 학교에 못 오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고 그렇게 작별 인사도 없이 교장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니 섭섭한 마음에 계단에 주저앉아 교장실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한동안 교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감사했다고,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인사도 못 드렸었으니까요. 2년은 더 저희와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 동곡 초등학교에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를 잘 이끌어 주고 계세요. 특히나 저희 학교 첫 여자 교장 선생님이셔서 의미가 커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처음으로 앞 번호가 여자 친구들이 되기도 했구

요. 학교에 체육관도 생겼구요. 4학년 하굣길에 학부모님들이 교문 앞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대요.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모르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누군가의 멋진 교장 선생님이 되어 계실 거라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그게 천국일지라도요.

참! 얼마 전엔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추억이 곳곳에 담겨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 한 구석이 참 허전했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긴 학교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권칠중 교장 선생님!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쪼그만 아이에게 좋은 마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이 주신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서 교장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인사로 편지의 끝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권칠중 교장 선생님! 사랑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은채 올림

오은채 | 동곡초등학교 6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이집트라는 국적을 가진 너희 가족

나의 세잎클로버 친구 하갈이에게

안녕? 하갈아! 나 마린이야.

매일 교실에 앉아 수다만 떨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려 하니 괜히 쑥쓰러운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에 만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5년이 되었는데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오늘은 너에게 고맙고 미안한 일들이 많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 내 편지를 쓰게 되었어.

5년 전 우리가 1학년 때 기억나니? 나도 많이 어렸고 학교가 처음이라 어색하기만 했었는데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 반 교실 문을 열고 네가 들어왔어 그 순간 너를 보고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어. 내가 태어나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긴 너의 모습이 조금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 “하갈아 이리로 와보렴.” 선생님께서 전학 온 너를 부르시는 거야.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어는 할 줄 아나...?’ 나는 마음속으로 신기해하며 너를 바라봤어. “에... 나.. 나는 암로하갈... 음...어...”하며 말을 더듬으며 소개하던 네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에게 관심이 갔어.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한국어도 할 줄

몰라?” 너무 큰 내 목소리가 교실로 울려 퍼졌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정도로 후회가 돼. 내가 말을 내뱉은 후 몇초간 정적이 흘렀고 네 눈시울이 붉어졌어. 나는 ‘아차’하며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너는 수줍은 말로 다행히 자기소개를 마쳤고 선생님께서는 네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고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말씀해주셨어. 근데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고 만 나는 너에게 했던 못된 말이 계속 생각났지만 차마 너에게 사과를 못 하고 시간이 흘러버렸던 것 같아. 물론 지금은 우리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에게 편견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선생님께서 깜짝 방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 그때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어. 낯선 얼굴을 하신 외국인 아저씨를 보니까 신기했는데 “엄마 아빠!”하면서 달려가는 너를 보니 너희 부모님이셨지. 4월 23일 너의 생일을 기념해서 학교에 방문해주신

너희 부모님께서 이집트라는 국적을 가진 너희 가족과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던 거 기억나? 그날 다른 나라의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너에 대해 알아간다는 게 정말 기뻐던 것 같아.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너랑 부모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문틈 사이고 보게 되었는데 엄청 깜짝 놀란 거 알아? 네가 부모님과 아랍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너를 보니 정말 멋졌어. 그리고 어린 나이에 2개 국어를 사용하느라 많이 헛갈리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쓰럽기도 했어. 너에게 했던 사소한 말들과 짜증들이 떠오르며 내 자신에게 화나기도 했고. 첫 만남 이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우리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이집트의 문화가 달라 속상한 일도 많았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와 함께 컵라면이나 젤리를 먹지 못했을 때... 너도 속상하고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 우리만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고. 특히 1박2일 체험학습이 많았는데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집이 아닌 곳에서는 잘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청천벽력 같았어. 처음 체험학습을 가는 날 서럽게 펑펑 우는 너를 옆에서 달래주면서 나도 너무 속상했어. 너와 친구가 되면서 대한민국과 다른 이집트 문화를 알게 되면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아.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6학년이 되었네. 하갈아 째기도 하면서 길었던 시간과 특별한 추억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아닐까?

내가 항상 덤땡대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고 부탁하면 다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가끔은 거절해도 좋을 것 같아. 너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 우리 앞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도 공유하고 우리 우정 변치 않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자.

이집트라는 나라,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너의 나라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가 내 눈에는 더 멋지게 보여.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밝은 게 너의 가장 큰 매력 같아. 너는 나에게 없어서 안 될 스페셜하고 좋은 친구야. 잊지 마!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

어주고 힘들 땐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 기쁠 땐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친구가 되자. 하갈아 그동안 수고했고 힘내!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사랑하고 감사해! 파이팅!

2021년 5월 23일
너의 베스트프렌드 마린이가

김마린 | 이리남초등학교 6학년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 ■

신! 나! 게! 사! 랑! 해! 즐! 겁! 게!

저를 위해 뭐든지 다 해주시는 우리 아빠께,

아빠! 안녕! 저 현빈이에요.

저를 예의 바르고, 좋은 습관을 갖고, 항상 모든 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어린이집에 갈때부터 인사로 지은 “신! 나! 게! 사! 랑! 해! 즐! 겁! 게!”를 1학년 첫 등교 날부터 불러주셔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학교 가는 길에 그 구호가 머릿속에 맴돌 때도 있었죠^^ 항상 저를 위해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잘해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빠~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게 있는데, 오늘 편지를 통해 용기 내어 얘기해 볼게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혼자 품고 있던 저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은 여태까지 엄마, 아빠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오직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그때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2학년때 쯤이 었어요. 밤에는 제가

이불속에 들어가 숨 죽이고 몰래 울고, 여러 고민도 만들며 저를 힘들게 하였지만 저는 그 비밀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식당에 가고,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보고 어떻게 반응 할지... 아무 반응도 없고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근데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학교 방학이 시작 되어 공항에 갔을 때 저는 우연히 거기에서 학교 친구를 보았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아빠한테서 떨어지며, 아는 사이가 아닌것 처럼 바닥에 숨을 수 있는 쥐구멍이 있나 찾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지만 만약 다시 그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ㅠㅠ

그리고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혼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때 차를 타고 다니는데 밖

에서 장애인 표지판이 보이지 않겠지?’ 저는 직접 보기로 결정했죠. 저는 학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서 차를 봤어요. 근데 아침이어서 그런지 장애인 표지판이 햇빛에 비춰서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한테 표지판을 빼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웬지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아빠가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몇일이 지난 뒤, 제가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뭐가 가장 부러워?’ 저는 그 친구의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친구의 아빠가 휠체어를 안탄다는게 부럽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을 바꾸었어요. “나는 너가 강아지를 키우는게 부러워. 나도 키우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당연하듯이 아빠가 맨날 집에 같이 있어서 부럽다며, 자신의 아빠는 1달에 1번씩만 온다며 그것이 부럽다고 했어요.

그 다음 년도 4학년이 되고 나서는 엄마가 육지에 가야할 일이 있었고

저는 아빠와 둘이 집에 있어야 했어요. 아빠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아빠와 둘이 있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아빠와 학교, 학원을 가야한다는거 때문에 엄마가 간다고 할때 안좋은 표정을 지은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학교가 끝나면 아빠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시잖아요...근데 저는 친구들이 보는게 싫어서 그곳을 지났다고 다른곳으로 와 달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몇달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온라인 수업 중 엄마, 아빠가 마트를 나간다고 해서 차를 봤는데 차에 실린 휠체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4학년을 보낸 뒤, 저는 5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이 되자 저는 학교 뮤지컬을 참여 할까 하다가 아빠가 2학년때 하신 말씀이 기억 났어요. 5학년때 뮤지컬 주인공이 되면 보러 가겠다고 한거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 오디션을 안봤고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5학년이 되니 엄마, 아빠가 슬립오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런다면 많은 친구들이 휠체어 탄 아빠를 알게되니 그냥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저는 이 속 마음을 꼭 항상 누군가에게 털어 놓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들은 많았지만 막상 얘기 하려고 하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전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는 친구 중 한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현빈아, 근데 너희 아빠 어떻게 되신거야?”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고 어쩔 수 없이 제가 1살때 교통사고로 아빠가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게 된 얘기해 주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게 많더라고요. 친구에게 얘기를 하니 그 친구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울면서 얘기하는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주 완벽하고 멋있는 분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 놓았을 때예요. 저는 이때 진짜

아무도 아빠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 혼자만 신경 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저에 대한 무언가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3년간 꼭 바꾸고 싶었던 저의 생각! 그게 아빠와 같이 밖에 나가고 남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 거였어요. 저의 마음 속 아빠는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자랑하고 싶은 아빠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 방학때는 아빠와 다닐 때 피하지 않기로, 아빠와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요.

그래서 몇일 전에 아빠와 단둘이 서점에 가고 싶다고 한거예요. 아빠와 둘이 다니면서 저는 남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으며 아빠와 손을 잡고 다녔어요. 한번해보고 나니, 저는 아빠와 다른 방식으로 더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서프라이즈였죠? 다음 단계는 제주도에서인데... 저 잘할 수 있겠죠?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빠, 저는 아빠를 누구보다 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아빠와 손잡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기를!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추신: 아빠, 그거 아세요? 저는 아빠 덕에 비행기도 제일 먼저 탈 수 있어요! 하하하!

2021년 06월 21일
아빠만 바라보는 딸, 현빈 올림

임현빈 |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6학년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 ■

그 때 잘했다고 부디 안아주길 바라요.

To. 언제나 아름다웠던 나의 엄마

안녕, 엄마! 나 엄마의 예쁜 장녀 민영이야.

엄마한테 편지 쓰는 건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처음이네! 5학년때까지는 부끄러워서 못 쓰고, 6학년 때는 솔직히 엄마가 죽은 걸 그리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봐. 엄마가 죽은 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 그냥 잠시 출장 갔다, 놀러 갔다로만 생각하고 억지로 믿었었어. 이제는 진짜 하나하나 자각하고 있어. 교복을 같이 보러 갈 엄마도 없고 내 가정통신문에 사인해 줄 엄마도 없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겨줄 엄마가 없다는 게. 슬프지만 자각하는 게 맞겠지?

사실은 지금도 엄마가 나한테 와서 안아줄 것 같아. 따뜻한 품에 정말 안기고 싶어. 엄마가 간 직후로는 사실 조금 많이, 어쩌면 정말 많이 믿지 않았고 믿기지도 않았고 엄마가 와서 안아주기만을 바랐었어.

사실 '언제나 아름다웠던 엄마'라고 쓴 건, 엄마는 언제나 아름답고 예쁘지만 내가 그걸 못 보잖아. 그래서 서운해서 과거형으로 썼다! 꿈에라도 와서 보여주지... 진짜 서운해ㅋㅋㅋ 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도 생겼고, 소중한 친구들도 생겼지만 엄마 자리는 그 누구도 못 채워주나 봐.

교복 입고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가지를 못 하네. 중간고사도 끝나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지를 못 해. 7월 27일 나 여름방학 다음날이라 그 때 즈음에나 갈 수 있겠지 싶어. 빨리 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저번에 민정이랑 꽃 보고 있는데 흰 나비가 온 거야. 난 그게 엄마라고 믿고 싶어. 흰 나비는 죽은 사람이 찾아온 거래. 나랑 민정이 잘 지내고 있어. 재성이도.. 잘 지낼 거야.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전하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가봐.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 해. 요즘 너무 보고 싶고 잠을 못 자. 앞에서는 잘 자고 있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정말 나 잘 지내는 것 맞는 것 같아. 아마도지만...? 엄마가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행복한 걸로 하자! :)

아쉬움은 아직 많이 남나 봐. 엄마랑 함께 하던 하루하루가 그림고 아

쉬워. 내 생일 때 꿈에도 안 오고.. 오늘은 와줘! 편지 답은 줘야지!♥ 진짜 사랑해. 종이 안 젖으면 좋겠다. 엄마랑 같이 집 가고 싶다. 우리 집. 편 안했던 우리 집 가고 싶다. 사실 다 잊고 싶었는데 내가 잊으면 우리 추억 아무도 기억 못 하니까 내가 다 기억하려고. 엄마랑 처음으로 단 둘이 마트갔을 때랑, 무주 갔을 때... 서울대공원 갔을 때까지 내가 다 기억할게. 다 기억해서 엄마 만나면 들려줄게.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내가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줄게.

편지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나고 펜을 들 수가 없어. 최대한 많이 전할게. 나랑 같이 걸어가 줘. 내 인생 잘 살아가도록 도와줘. 그러면 나도 힘낼게!♥ 진짜 사랑해. 나의 찬란한 우주. 나의 한 세계였던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있을 때 잘할 걸 싶다. 나 사실 안 괜찮다. 괜찮은 척 하기도 힘들다. 정말 나도 지쳐, 엄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 신경 쓰고 맞춰주고... 진짜 죽겠어, 나. 한번만 안아줘. 그러면 나 괜찮아질 것 같아. 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만 안아주라. 나 교복도 잘 입고 학교생활도 잘 할게.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이었는데 민정이랑 놀러 다녔다? 엄마랑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행복했을텐데, 싶다가도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놀았어. 잘 했지? 난 아직도 서울대공원의 놀이공원과 동물원에 가고 싶어. 우리 다음에는 놀이공원쪽도 가기로 했잖아. 그치? 거기 가서 우리 3시간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 되게 지쳐서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기로 꼭 약속하고 집에 왔었잖아. 이디야에서 쿠엔크 웨이크도 사주기로 했는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엄마랑 한 약속. 다시 지켜줄 때까지 나는 다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한다! 엄마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 칭찬 받을 것도 많아! 항상 엄마가 착하게 살자 해서 나 혼자 수행평가에서 틀렸는데 맞은 것도 재체점 받고 동생도 잘 챙기고 학교도 잘 다니고 사랑이란 마음을 많이 베풀었어. 조금의 일탈은 있었지만 말이야!♥♥ 내 맘 알지?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했었잖아. 지금은 무슨 색이 좋아? 난 나 혼자 하는 여행이 좋긴 한데 엄마는 괜찮아! 진짜 보

고 싶어, 엄마.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 내 머리에 낙인이 찍힌 것 같아. 엄마는 은하수를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 은하수는 어때? 그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했었잖아. 나도 보고 싶다. 그 별들 사이에 엄마가 있을까 싶기도 해. 손을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멀지만 내게는 가까이 있지. 나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우리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중 ‘지금 너를 찾아가고 있어’라는 노래가 있어. 노래 가사가 너무 예뻐서, 또 추억할 만큼 잘 맞아서 더 좋은 걸까? 엄마. 편지는 수령인이 없어도 발송은 된대. 그 대신 반송이 될 뿐이지. 난 부디 이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의 세상이자 별, 달과 해였던 엄마. 이 편지를 부디 읽고 꿈에 와 답신을 해주길 바라. 은근 나 기대하고 있는 거 알지? 내 성격 알잖아, 잘 빠지는 거! 진짜 빠질 거야. 가끔 정말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집으로, 어딘지 모를 편만한 그 곳으로, 정말 보고 싶어 엄마. 너무

나도 보고 싶은 나의 세상아. 몇십년만 기다려줘요. 열심히 살다가 갈게. 그 때 잘했다고 부디 안아주길 바라요.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보냅니다.

Your Love 올림

김민영(가명) | 새뜸중학교 |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To. 보고 싶은 언니에게

언니 안녕? 나 언니 동생 현이야! 이렇게 언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거 같네.

언니, 내가 언니에게 처음으로 속마음 털어냈던 날 기억해? 내 이야기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막 내 친구 이야기인 척 돌려 대고서는 내 속마음을 막 털어냈었잖아. 그때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서 나에게 “그 친구에게 힘이 되는 말이랑 응원이 되는 말을 해 줘” 라고 말을 하고서는 “내가 왜 너 옆에 있는 거 같아? 그냥 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와서 기대라고 있는 거야. 울고 싶으면 울고 땡깡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그러니까 죽으려는 생각하지 마 현아.” 이 말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언니에게 내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 이야기라고 말 했는데도 내 이야기인 걸 알아주고 저렇게 얘기해주니까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였는데 언니만큼은 내 편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준 언니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확 밀려오더라.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언니에게 미안해져와.

예바, 곰순 이 별명들 기억해?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준 날 있잖아. 난 언니에게 ‘곰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언니는 내게 ‘곰돌’ 동생이니 ‘곰순’이라는 별명과 함께 ‘예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 내가 언니에게 ‘예바’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언니는 ‘예쁜 바보’ 줄여서 ‘예바’라고 알려줬었잖아. 사실 언니가 내게 ‘곰순’, ‘예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날만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기쁜지 몰라.

언니, 난 아직도 9월 달이 되면 신이 원망스러워. 제작년인 2019년 9월 초, 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정도를 평평 울었어.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언니는 점점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사고가 있고나서 한 일주일 뒤쯤에 언니가 갑자기 급성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언니가 입원하고서 조금씩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언니가 내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냈어. “네가 내 동생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그 날만 생각하면 좋더라. 그리고 네가 내 곁을 안 떠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너도 알 거야. 내가 아직 부족하고 못나서 내 동생 많이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더 무섭고 슬프더라. 그동안 내 동생으로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마워. 난 내 동생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고 사랑한다 내 동생” 이 메시지를 받고서 언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이자 인사가 되어버렸어.

2019년 9월 20일 지영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언니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처음에 언니가 내게 말을 했을 때 장난치는 줄 알고 안 믿었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 두세 달 정도는 매일 울며 정신이 반쯤 나간 것처럼 지냈어.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언니가 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기도 했고 나를 놔두고 간 언니를 욕도 하고 원망도 할 때쯤에 지영 언니가 그러더라. “현명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라고 하며 내게 말을 이어갔어. “내 동생 외롭지 않게 해주고 절대로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고 나 대신 잘 부탁하고 많이 보듬어주고 언제나 내 동생 편이 되어주고 내가 사랑을 못 줬던 만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오래 옆에 있어주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들게 해줘.

그리고 내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 동생이 왜냐고 물어보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가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가니까 마음이 찢어질 거 같네. 내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미안하고 사랑하고 애정한다고 꼭 전해줘 지영아” 언니는 끝까지 나를 걱정해주다가 갔는데 언니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언니를 원망했던 내가 후회되더라.

언니, 언니가 날 아껴준 이유가 언니 닮아서였잖아. 나 이제는 자해도 안 하고 언니 생각하면 매일 울던 때와는 참 많이 달라졌어. 언니가 곁에

서 지켜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언니가 언제나 내 옆에 있다고 생각
하니까 꼭 곁에서 나 지켜봐줘!

Ps. 언니가 좋아하던 꽃은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झा. 내가 좋아하
는 꽃은 리시안셔스: 변치 않는 사랑, 빨간 소국: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
랑초: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꽃과 꽃말
들이야.

2021년 05월 22일 언니의 하나뿐인 동생이

윤서아 | 원덕중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 ■

고요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어

To. 이제는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오랜만에 불러보는 호칭이 어색하기만 해. 나랑 수림이보다 조금 일찍 발걸음을 땀, 내게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엄마와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던 아빠에게 편지를 써보려 해.

엄마,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실 잘 기억나지도 않는 가냘픈 추억만 가지고 있는데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한데 가슴 속에 담아만 두고 있었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엄마가 학교 다니길 버거워하는 나에게 홈스쿨을 하자고 했었잖아.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엄마가 공부를 가르쳐줬잖아. 같이 학교 이름을 만들고, 수업 방식을 정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공부했던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그때는 단순히 학교 다니지 않았던 게 좋았는데, 이제 와보니 너무 행복한 추억이 되어버린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던 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에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은 어린 마음에 웃기만 했어. 엄마. 나랑 수림이 키우느라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매일 두통이 찾아오고 이따금 앓아누웠잖아. 그래도 미루고 미루다가 가슴에 멍울이 졌을

때가 돼서야 겨우 간 병원이었잖아. 나중에야 알았지만 말기라서 수술도 하지 못했다는 걸 알았을 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버려서, 전하지 못하는 슬픔이 가슴을 아려와.

엄마, 있잖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전히 가슴 속에서 사무치게 슬픈 기억이 있어. 그날 새벽, 아빠의 울음소리에 깬 때 거실에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가 누워있었거든. 금방이라도 몸을 일으켜 '수연아' 하면서 익숙한 목소리를 낼 것만 같은데, 조심스레 만져본 팔다리는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있었어.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엄마는 엄마의 강한 신념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눈물로 가득한 소리에 수림이도 깨어나 얼음장 같은 엄마를 둘러싸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것 같아. 곧은 자세로 두 눈을 뜬 채 하늘로 발걸음을 땀 엄마는 모두가 잠든 사이 고요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어. 병원을 가지 않고 자연치료를 투병하겠다고 시골로 귀향까지 갔던 우리 엄마. 진통제보다 한약이 몸에 더 좋으면서 환한 치아를 드러내며 약을 마셨던 우리 엄마. 매일 밤을 두통으로 고사리 손인 딸의 안마를 받아

야 겨우 잠들었던 우리 엄마. 엄마는 내 가슴 아주 깊은 곳에 머물렀어. 엄마는 내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지. “수연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장을 펼쳐.” 어쩌다 보니 이것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린 거야. 엄마는 어린 내게 나무보다도 큰 버팀목이었고, 절대 굽혀지지 않는 강인한 존재였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처럼 살고 싶었고, 항상 나의 우상이었거든. 이제는 그림기만 한 잔소리와 따끔한 매질은 다신 볼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엄마의 울골은 가르침으로 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엄마의 큰 사랑을 이제야 와서 온 감정으로 느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따뜻한 바람이 감싸는 것처럼 말이야. 엄마가 먼저 떠난 후 6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엄마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던 아빠도 엄마를 뒤쫓았어. 지금은 같은 자리의 별이 되어 나와 수림이를 더욱 환히 비추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아빠, 아빠의 자랑스러운 장녀 수연이야. 아직은 아빠의 빈자리가 어색하고, 분명 자리에 아빠가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 보면 허전하기만

해. 두 번을 겪었지만 아주 긴 이별의 슬픔이 마냥 무더지지만은 않더라. 엄마가 먼저 세상을 뜬 후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우리 아빠. 모든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항상 수림이와 나를 이끌어주던 우리 아빠. 어리광 철부지에 못난 딸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항상 등 뒤에는 아빠가 있었고, 든든하고 깨끗하게 서 있던 아빠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으로 혼자 한없이 무너진 거야. 엄마의 존재 없이 이겨내야 하는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픈 아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아빠는 태풍 속에서도 강철처럼 버티는 나무와 같이 수림이를, 나를 위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

중학교 2학년 여름, 아빠가 갑자기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에서 폭풍우가 이는 것 같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 나와 수림이의 밥을 차리고, 혹여나 잠에서 깨어날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아빠는 스트레스성으로 간암 판정을 받았잖아. 한 번 겪어봤기에 알았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후에서야 아빠를

바라봤었어.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했던 아빠. 배가 복수로 가득 차서 거동이 힘든 날에도 아빠는 나와 수림이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버스를 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빠는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었지. 아빠는 언제나 나와 수림이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마지막 날, 병실에서 아빠는 날 알아보지 못했어. 고통이 너무 심한 탓에 무고통 상태라는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나와 수림이가 마음에 걸려 눈을 감지 못했잖아.

아빠, 나는 아빠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나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던 거야.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쉬라고 말하고 싶어. 어둠이 자욱하게 깔려도 환한 아침이 오는 것처럼 난 이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요. 아빠에게 진로 고민을 말했던 날,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지. 뭘 하든지 밀어주겠다고 말하는 아빠의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낮에는

부드러운 햇살로, 밤에는 무수한 별빛으로 나와 수림이를 밝혀줄 거잖아. 그치? 그림자가 짙어질 수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봄별보다 따뜻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 꾸준히 성장할게. 영원한 나의 선생님, 무궁한 나의 위인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마수연 | 링컨하우스부천스쿨 12학년 |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

값비싼 다이아몬드

고마우시고 존경하는 엄유정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엄유정 선생님, 저는 엄마 배 속에서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기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3개월에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로 나와서 저한테 전염되면 치료비가 몇 천 만원이 들어가고 치료해도 언제 치료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B형 간염 보균이 비활동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었지만 언제라도 활동성으로 변하면 낙태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7개월에 초음파 검사 결과 머리에 이상이 있으니 대학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내증막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신경 쪽 내증막은 정상인데 지능 내증막이 이상이 있어서 제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더라도 바보로 살 수 밖에 없으니 일주일간 잘 생각하셔서 저를 지울지 아님 낳을지 결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희 아빠를 따라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의 생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

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정밀 검사를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긴 주사 바늘을 엄마 배 속으로 찔러 넣어서 저의 피를 뽑아내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술 과정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엄마와 제가 죽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각서를 쓰지 않고 정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를 지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서를 쓰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생각보다 저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면서 낳아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 10개월에 분만 날짜가 7월 5일인데 제가 나올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7월 19일이 되어서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가고 임신축진제를 맞고도 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초음파 검사를 결과 제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긴급하게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12시 05분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의 기쁨은 잠시였고 저는 생후 18개월이 되어서야 걷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많이 느렸고 4년 후에 동생과 함께 분유를 먹었습니다. 저의 이상 증상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른 애들이랑 조금 느린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년 내내 왕따를 심하게 당하고 엄마는 수시로 학교에 불러 다니시고 성적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과외학습을 무료로 수없이 들었지만 성적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한밭여중 1학년 1학기 말기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과 왕따를 당해 경찰 조사와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정신없이 이쪽저쪽 불러 다니다가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 장애 3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진짜 진심으로 지금껏 숨기고 살았는데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면서 집단 폭력과 성적 학대를 한 가해 학생들은 권고조치만 받고 여전히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피해 받은 저는 수치와 장애취급 상태로 치유센터만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지만 가해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전학가기를 원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가정 상황이 전학가기가 어려워 결국 피해학생인 제가 전학가기로 결정 났습니다.

그렇게 전학 갈 학교가 대성여자중학교로 결정이 나고 저희 부모님은 교감 선생님과 특수반 담당인 엄유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유정 선생님은 표정이 매우 밝으시고 생각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엄유정 선생님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 영원이 부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도 장애인 자식을 키워봐서 부모님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원이 부모는 아니지만 내

자식같이 잘 돌볼테니 걱정 마시고 맡겨주세요. 엄유정 선생님의 말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사치레로 생각했는데 엄유정 선생님의 말씀은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유정 선생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반 활동을 통하여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우고 특수반에서는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우미 역할도 했습니다. 바리스타 하는 법, 차 내리는 법, 예절 교육도 배우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면서 수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수영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도 따고 무엇보다 신인 선수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내내 부모님은 학교를 불러 다니면서 눈물과 서러움도 많이 받았는데 대성여자중학교 엄유정 선생님을 만나면서 중학교 2년 내내 학교에 불러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안 불러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엄유정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문제를 차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먹고 살기 바빠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경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엄유정 선생님은 학교 등학교를 직접 시켜주시고 부모님 대신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영으로 이 모든 공은 엄유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을 때는 쓸모없는 돌맹이에 불과하지만 깎이고 깎여서 마침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아무 쓸모없는 저를 가꾸고 가꾸어서 마침내 보석처럼 자라게 하여주신 고마운 엄유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아무 쓸모없는 특수반 아이들을 이 세상 보석같은 아이들로 키워내실 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도 밴드방에서 엄유정 선생님의 격려와 배려로 날마다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엄유정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감사의 편지를 마감할까 합니다. 엄유정 선생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신 엄유정 선생님 파이팅!!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2반 3번 김영원 올림

김영원 | 대전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

선생님이란 빛나는 별

To. 새로운 '삶'을 주신 상담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아현이에요.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편지를 남겨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그저 상담은 선생님께 원하는 답과, 말,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셨어요. 온 마음과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누군가 저를 들여다보는 게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너를 이해한다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해서, 삶의 희망이 없었던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이 묵묵하게 나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 보고 싶고요...

선생님 덕분에 사건도 잘 해결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저에게 전화도 자주 해주시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시고, 끝까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죠. 사랑받는다든 감정을 처음 느꼈어요.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사람

이 있구나 하고.

저도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같은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해서도 있으며, 저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 살려고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희망을 품고 저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뵈는 것 같아요. 담당 경찰 언니가 정말로 다정하셨어요. 매일 아현아, 하시며 부르시는 게 마음이 묵직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좋은 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가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떠나시고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건 인생의 경험,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가며 성장도 하고 추락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란 빛나는 별을 보며 숨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것도 인생의 바

귀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게요.

더 이상 울며불며 난 할 수 없어 죽고 싶어가 아닌 툭툭 털고 일어나 달려볼게요. 정점에 올라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 포근하게 안아줄래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세상 아무도 너희 편이 아니어도 나는 내 모든 것을 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백 마디 말보다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사람이 죽도록 밟고 싶었지만, 또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려 합니다.

선생님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픈 저의 팔을 선생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것을 후회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일깨워준… 삶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아팠던 아이가 괜찮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젠 정말 좋아질 거예요.

아침의 공허한 공기도 새벽하늘 향기도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사랑하기에, 살려고 해요. 엄마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엄마와도 같던 선생님께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꺾어버린 인생이라 나 같은 존재는 추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치 따위는 볼 수 없었는데. 꽃 같은 나의 선생님 정말로 사랑하고 더 없이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마음을 주려고 해요. 나와 다르지 않은 너희의 거울이라고 너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은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세상은 무너져 나를 뒤덮고 무너뜨렸지만, 난 거름이 되어 새로운 삶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푸른 하늘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예쁜 나의 선생님 항상 꽃길에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맑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2021.5.10. 최아현 올림.

최아현 | 가은고등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 ■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

To. 사랑하는 고모

고모 잘 지내? 나 고모의 귀여운 조카 주영이야. 갑자기 편지를 쓰려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네. 그래도 고모를 향한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 담긴 편지니까 조금 길어도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생애 다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고모가 나한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자면 내가 6살 때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 기억해? 그 때 고모가 어린 애가 혼자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 시작했잖아. 그 덕분에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닐 수 있었어. 비좁은 마사지 가게였지만 고모와 함께 숯바꼭질을 하니까 그 작은 가게가 궁궐같이 넓게 느껴졌었지. 고모가 나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결정한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근데 어렸을 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고만 치고 다녀서 고모 속만 타 들어가게 했었네... 그런데도 고모는 나에게 소리 한 번도 안 질렸었지.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났던 큰 소리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알고

무슨 사고를 치든 결코 큰 소리만큼은 절대 친 적이 없었어. 화가 나도 마음에 꼭꼭 눌러 담기만 하고 그런 내색을 하나도 안 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더라. 여자 혼자서 일하고 육아하고 청소하고 등등... 아마 내가 고모였다면 분명 포기했을 거야. 근데도 고모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잖아. 친딸도 아닌 데 말이야.

고모, 혹시 그거 알아? 나는 고모 아니었으면 아마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가나다라마바사', '1+1'도 몰랐을 걸?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고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나는 고모를 만나서 글자를 배우고 대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 있지. 그래서 고모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어엿한 고1이 되었으니 말이야.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가 고모보다 키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언제나 고모는 나보다 40cm는 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니... 정말 거짓말인 것만 같다.

그리고 보니 이제 고모가 곧 있으면 환갑이네…. 내 기억 속에 고모는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는 아가씨였어. 정말로. 그런데 환갑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게 간 것 같아. 고모는 나 때문에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난 지금도 그게 너무 미안해. ‘고모가 나를 키우지만 앓았더라면 고모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즐겨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사는 게 얼마나 갑갑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끝까지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참, 그걸 아직 말 안했네. 고모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생일을 꼭 챙겨주었던 거 말이야. 솔직히 고모 아니었으면 나는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을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축하 해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고모는 자기 생일은 잊어버려도 내 생일만큼은 꼭 챙겨주었지. 일부러 바쁘데도 시간 내서 놀러가서 맛있는 것을 진탕 먹고 들어오기도 했고. 고모랑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날만 가득했었던 것 같네.

고모, 나는 이 편지에 고모에게 느끼는 고마움을 유창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분명 닿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맙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고모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어. 비록 똑똑하고 유능한 조카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이름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조카가 될게. 다시 한 번 더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고모와 조카가 되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내가 취직도 하게 되면 같이 고모가 가고 싶어 했던 스위스를 가보자. 고모의 지난 날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앞으로는 고모가 가는 길을 꽃길로 바꿔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2021.3.23.화

By. 고모의 영원한 동순이인 주영이가.

박주영 | 원주의료고등학교 1학년 | 여가부 장관상 수상작 ■

하지만 지금, 엄마에게 감사하듯
 엄마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
 엄마가 병원에 계신 동안 더 챙겨주신 선생님,
 할머니, 아빠, 이모들 모두가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해야 될 거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림초등학교 4학년 고준

빛깔고운 꽃과
 향기로운 마음

목호중학교 1학년 이진아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신한고등학교 3학년 윤정인

옥무지개처럼
 언제나 예쁜 빛

한일초등학교 6학년 김해린

그 누구보다
 멋진 아들이 되어 올게

밀성중학교 3학년 손영준

장미

한 송이

용남고등학교 2학년 김서연

꼭 행복하게

살게요

경산여자중학교 3학년 김민채

100억개도

더한 많은 감사

포항송곡초등학교 6학년 이유섭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To. 김동훈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살려주신 양재순 환자의 손자 고준 이라고 해요. 감사편지를 쓰는 행사가 있어서 선생님께 쓰게 되었어요.

작년 11월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어요. 엄마가 “미안해 준아,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하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따라서 울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기시고 밤마다 선생님이 보내 주시는 소식을 녹음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에 저희 가족들도 항상 기운을 냈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감사해요. 항상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환자 기운 내라고 스피커폰으로 할아버지에게 저희 목소리 들려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계속 울면서 “아빠 죽지 마.” 소리 밖에는 안했지만, 할아버

지가 퇴원하시고 들려주시는데, 누가 자꾸 불러서 못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시더라고요. 그 때가 선생님이 기관지를 절개해 주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족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국군수도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은인이라고요. 저도 선생님들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를 살려 주시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준 | 성림초등학교 4학년 | 강원교육감상 수상작 ■

빛깔고운 꽃과 향기로운 마음

To. 기다림에 시간이 빛깔고운 꽃과 같다고 가르쳐준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말 들리세요. 할머니. 아주 크게 말할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 저 진아예요. 할머니의 아주 깜찍한 손녀 이진아예요. 제가 항상 예쁜 손녀는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할머니의 작은 마음도 그저 귀찮았었죠. 어른들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싫은 뾰족한 가시를 지는 아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덕분에 온 몸에 가시를 세우고 세상을 보던 진아는 빛깔고운 꽃과 향기로운 마음으로 가득찬 예쁜손녀 진아로 변화했습니다.

만약 할머니와의 시간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뾰족한 가시를 세우기 바빠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 가득한 고슴도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까만 액정위에 “밥은 먹었니”라는 하얀 글자가 별빛처럼 반짝거립니다. 지금은 이 글자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그려지지만 예전에는 “와~ 또 전화오셨다. 하루에 전화를 몇 번 전화 하시는거지 할머니는 친구도 없

으신가. 나한테만 전화 하시는지”하며 부르듯한 목소리로 “예-할머니. 밥 먹었어요”그리고 늘 짧은 “예-” 대답으로 통화를 마치곤 했다. 너무 귀찮았죠. 괜히 내 시간을 허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제가 집에서 조금 먼 중학교를 입학하면서입니다. 집에서 떨어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들에게 학교는 걸어서 통학하겠다고 호기롭게 통보아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견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여자아이가 늦게 혼자 걸어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자란 이유로 오빠는 다 괜찮은데 저는 안되는 것이 너무 많아 이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속상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이때 우리 꽃분 홍자 할머니께서 내 의견을 지지해 주셨어요.

할머니 덕은 우리집과 학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께는 멀 수도 있는 거리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운동삼아 함께하면 된다는 말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르막길에 접어들면 빨간 모자를 쓰신 할머니께서 저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하고 제가 외치면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께서는 근처 작은 숲을 보시느라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크게 “할머니!”라고 부르면 할머니는 웃으시며 “진아야, 밥먹었어? 조심해서 와”라고 하신다.

할머니가 보고 계셨을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사철나무아래 파랗게 하늘 빛으로 핀 작은 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늘에 가려져 핀 꽃들은 할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보고계셨을까요. “할머니 꽃보셨어요”하고 묻자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래. 참 예쁘자아~ 요렇게 작은데 이 맵찬 바람에도 활짝 피어있지 않냐. 꼭 너 같다. 작은 망울만하던 것이 어찌 요렇게 예쁘게 꽃이 되었냐”라고 말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미운 말만 하는데 뭐가 예뻐요”하자

할머니는 “다 어른이 되려고 미운말도 하고 미운행동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길에 핀 꽃들도 자기의 모습을 봐달라고 고운 빛깔로 피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모습을 예쁜 빛깔로 세상에 내어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스스로 고운 빛깔로 변화할걸 믿고 지켜봐 주신것을요.

제가 미운말, 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머리를 쓰담쓰담해주시며 기다려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존중해주고 나의 투닥거림이 빛깔고운 꽃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배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할머니와의 하룻길이 없었다면 친구들을 향한 열린 마음도, 어른들을 바라보는 빛깔 고운 마음이 내 맘에 물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세상을 고운 빛깔로 볼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의, 기다림이란 시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할머니와 하룻길이 기다려져요. 할머니

다음에는 제가 ‘이 딸기 요거뽕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보아요.

2021년 4월 13일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녀 진아 올림-

이진아 | 묵호중학교 1학년 | 강원교육감상 수상작 ■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To. 최선을 다한 당신께

안녕하세요 아빠 저 아빠 딸 정인이에요~ 늘 집안에서는 툭툭거리고 짜증만 내는 고3 아빠 딸이 이 캠페인을 빌려 아빠께 편지를 써봅니다.

요즘 우리 가족 네 명 모두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험생활 때문에, 준상은 고약한 사춘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우리들을 감당하느라 많이 지쳐 보여요. 그중 가장 힘든 건 아빠일거라 생각해요.

제가 일곱 살 때 아빠께서 다리를 다쳐 입원해 누워계셨던 장면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엄마는 아빠가 축구하다가 다치셨다 제게 말씀하셨고 어린 저는 유치원에서 받은 손거울을 아빠께 자랑하며 해맑게 동생과 장난치던 것까지 기억납니다. 몇 년 전 기억도 가물가물한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난 그 기억을 붙들고 있던 건 평소와 달랐던 집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티비 속 연기로 가득 찬 뉴스를 보며 너희는 방으로 들어가라 말하시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 그때 아빠가 다치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신 아빠가 어린 저희를 위해 위험한 일용직일, 막노동이라도

찾아 하러다니시다 다치게 되셨던 거라는 것어요. 티비 속 연기로 가득 찬 뉴스는 아빠 회사동료들과 아빠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동안 아빠랑 떨어져서 살게 된 이유도, 가정주부셨던 엄마가 회사를 다니시고 저희가 유치원 종일반을 하게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엄마아빠께서 어떤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셨을까, 한글도 잘 모르고 해맑던 우리 둘을 데리고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비싼 유치원 다니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 걸 후회도 났어요. 그래도 그때 아빠가 운 좋게 회사에 복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과분한 환경에서 과분한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아빠가 소주를 꺼내시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더 이상 해맑은 일곱 살이 아니기에 아빠의 소주가 다시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란 것도 알아요. 오늘 아빠가 회사를 가지 못하신 이유도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회사가 나오는 뉴스를 봤어요.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한 기사, 필요 없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아빠와 그 동료들 욕하는 댓글들. 상장폐지 위기에 거래가 중지된 아빠회사 주식. 아빠 회사 실검 1위도 찍네~ 아빠 되게 유명한 회사 다녔던거구나~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가장으로서 그 무게를 혼자 견디고 계신 아빠의 얼굴이 씩씩해 보여요.

아빠가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어떤 일을 임하거나 당장 해야 하는 일이 하기 싫을 때 상기하는 말이 있어요. 들을 당시에는 쑥스럽고 울컥해서 장난스럽게 반응했는데요, “아빠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짐하는 게 있어. 난 오늘 무슨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는다, 그럼 그 일당만큼의 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의 일에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누군가에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말이었겠지만 그저 회사는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사회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당장 내 눈앞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애사심은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말 이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 수년전 아빠의 회사가 파업하게 되었는지, 지금 뉴스 속 상황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저는 전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주로 야간 주간 바뀌가며 일하시느라 생체 패턴 맞추기 위해 매주 일요일 졸음을 참던, 아픈 날에도 꼭꼭 참아가며 회사 개근하던, 다음날이 일하러가는 날이면 약주도 마다하시던, 그런 아빠를요. 누구보다 아빠의 위치에서 회사에 최선을 다한 당신을 아무도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 한 아버지이자 어른이세요. 전 사실 아빠의 인생과 제 인생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빠의 모습보다 훨씬 근사하고 멋진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지고 제 위치를 깨

닫게 되는 과정을 자주 겪다보니 아빠의 인생이 제가 꿈꾸는 성공한 인생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네 명의 식구들이 따뜻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아오신 아빠의 삶으로부터 온 결과라는 것도요.

십대의 마지막에 서 있다 보니 진로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빠만큼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누구보다 아빠 인생에 당당할 수 있는 성공한 삶을 사셨어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열아홉부터 열아홉 딸을 키우기까지. 한 회사에서 26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족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혼자 앓지 마시고 같이 나눠요. 아빠의 청춘이자 꿈이었던, 지금의 우리 가족을 있게 해준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길 기도하며 글을 줄입니다.

사랑해요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자 부모가 되게요. 아빠 항상 버릇없는 딸이라 너무 미안해 지난 18년 동안 아빠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던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Ps. 표현 못하고 버릇없는 딸이 쑥스러워 동요를 빌려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날 가장 사랑하신 멋진 우리 아빠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
아빠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뤄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아빠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딸 정인 올림

윤정인 | 신한고등학교 3학년 | 경기교육감상 수상작 ■

옥무지개처럼 언제나 예쁜 빛

To. 사랑하는 외할머니

든든한 비타민이 되어주는 외할머니! 외할머니 곁에서 언제나 빛을 낼 큰 손녀예요. 난로 앞에서 웅기종기 모여 있던 겨울에서 같이 손잡고 꽃 구경을 할 봄날이 왔네요.

요새 무릎은 괜찮아 지셨어요? 무릎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빨리 괜찮아 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외할머니께 생일 감사 카드만 드렸지 이런 긴 편지를 드린 적이 없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충동원해서 편지를 써요.

일단 미안했던 마음을 전할게요. 언제나 제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사실, 그 용돈을 쓰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게 장사를 하시면서 힘들게 버신 돈인데 매번 용돈을 주시면서 그 용돈을 계속 쓴다는 게 엄청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용돈을 안 쓰면 그것도 죄송스러우니까 그 용돈으로 어린이날 선물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먹었지만 여전히 마음 구석에는 쓸데없는 걸 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죄송스럽고 계속 용돈을 받는 것도 죄송해

서 이렇게 전했어요.

이제 행복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항상 저희 생각만 해주시고 항상 함께해주시는 외할머니! 함께 여행가서 좋은 시간도 갖고 행복한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서 놓고 간식 먹고 낮잠도 잤던 추억이 기억나요. 키티 캐릭터가 꾸며져 있던 포크와 타다가 앞으로 넘어졌던 흔들 목마도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죽녹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육회 비빔밥도 먹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또 기억나는데 우리 태안 바다도 같이 갔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제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할머니께서도 이런 추억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 소원은 언제나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있어주신다는 거 약속해 주신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제 건강한 비타민이 되

어르신 외할머니!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 깜빡할 뻔 했네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예요! 외할머니 이름으로 삼행시예요.

김: 김인옥 외할머니!

인: 인형처럼 항상 안아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녹여주시는
김인옥 할머니!

옥: 옥무지개처럼 언제나 예쁜 빛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영원히 사랑해요!

옥무지개는 색이 아주 고운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언제나 외할머니를 사랑할
큰 손녀 김해린 드림-

김해린 | 한일초등학교 6학년 | 경기교육감상 수상작 ■

그 누구보다 멋진 아들이 되어 올게

To. 2713km를 앞만 보고 달려오신 나의 어머니에게

엄마 안녕? 엄마의 맏아들 첫째 영준이야 나 사실 엄마 싫어했었다? 베트남에서 자라서 한국에 오자마자 날 낳았으니 내가 한국에서 처음 해 보고 겪는 것은 엄마 또한 처음이었고 교육에 관심없던 아빠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엄마 사이에서 자라 내 또래 아이들만큼 빨리 한국말을 잘하게 될 수도 없었어 그래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진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을 다하여 보살펴준다고 느끼며 부족함 없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며 지냈어.

엄마는 혹시 기억나? 어린이집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매일 사달라고 졸랐던 파워레인저 양말을 한결같이 그런다며 잔소리해대면서도 결국은 못이겨 사주곤 했었잖아 부족한 환경 속에서 그런 사소한 행복을 함께 공유했던 엄마라는 존재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선 힘이 되고 나날이 행복했던 이유였어.

그런 좋은날들은 빨리 흘러가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둘째가 막 4살이 되던해가 오고 그와 함께 엄마는 우울증진단을 받게되었지.

그때는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몰랐어 그냥 좀 엄마가 많이 낮설어졌구나라고 느낄뿐이었어..

이때부터였다.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 아픈 엄마는 전 처럼 나를 봐주지 못하고 서툴게하던 한국말을 가져서 초등학교에 오니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내지 못했어. 지금은 잘지내고있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그때를 물으면 쉬는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친구들과과는 어울리지않고 도서관에 앉아서 만화책만 읽던 놈이었다고 불릴 정도였지.

난 그시절 엄마를 되게 원망했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늘 슬퍼하고 계속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엄마는 여전히 나를 돌보주시긴했지만 어딘가 빠진 느낌이었거든 매일 집에 도착하면 나에게 묻던 친구들과 있었던일부터 시작해서 어떤걸 배웠냐 까지 나에게 대해 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던 엄마는 이제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의 오아시스와같은 집이란 공간은 가득 예민해진 엄마의 잔소리, 엄마와 아빠의 싸움소리로

가득 채워지게되었어. 그런 나날들이 너무 싫었고 나는 엄마한테 내 심정을 토로했어. 작고 말도 잘 못하던 작은 아이가 하는 감정의 발산은 얼마나 하찮고 불품없었을까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화만 내지않았을까 그럼에도 엄마는 그날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29세의 젊은 나이에 2713km를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위해 달리고 한국에 와서 무작정 나와 내동생을 낳고 집안의 가계가 힘들어져 길을 잃고 방황하던 엄마에게 나의 그 말들 큰 상처가 되었을수도있었을건데 엄마는 그 불품없는 말들을 듣고 나와 가족을 위해 결국은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어. 아마 그때부터 부업을 시작하고 고된 새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잖아.

엄마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욱 견고한 집을 받치는 기둥이 되자 우리의 생활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어. 엄마 덕분에 집안은 다시 잘 돌아가게 되었지. 다시금 엄마는 나의 애정, 교육, 인간관계 등 부족한 것들 함께 채워나가줬어 유치원때 보다 말야. 정말 다시금 찾은 안정은 나를 행

복하게 만들기엔 모자름이 없었어 다시 시작된 행복은 평화를 가져다주었지만 평화의 시작이 불행을 함께 끌고올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일어나리라 예상가능한 사고였는데.. 평화는 우리 앞을 보지못하는 멍청이로 만들었지. 엄마는 사고라고 말하지만 난 인정할수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엄마의 짐을 들어줬더라면 그전날 엄마에게 놀아달라고 떼만 쓰지않았더라면 엄마는 실수를 하지않았을거고 중지 손가락의 마디가 찢려나가지않았을텐데.. 내가 쌓은 엄마의 피로는 결국 인과를 낳았지 난 그 소식을 하교후 엄마의 친구에게 들었을때 정말 심장이 철렁내려앉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되었어 등에선 식은 땀이 나고 다리는 덜덜 떨리는 데 도저히 그 소식을 믿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재차 계속해서 물어봤어 "네? 네? 제가 잘못들은건 아니죠?" "그래.." "아빠는요?" "아빠도 엄마 병원 같이 가준다고 집에안계신단다, 오늘은 우리집에서 같이 가자꾸나" 정말 담화 하나하나가 배경 하나하나가 다 기

억 날 정도로 충격 받았었어

낫선집의 베개시트를 눈물로 다채우고 난 후에야 잠들 수 있었지.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조금은 진정된 나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 절단 부위가 깊지않아 다행히 잘꼬매었다고 대신 1달정도는 입원해야한다라고 말하셨나? 어려운 말이 드문있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의 나에겐 뭐라 표현할수없는 기분이 들었어. 이걸 기쁨이라해야하나, 슬픔이라해야하나 뜻모를 감정이 계속 내맘을 돌았어. 엄마가 다쳤는데 기쁘기엔 미치겠고 그렇다고 슬프기엔 엄마가 나올 수 있다니 영 슬프기에도 그렇잖아. 그 휴대전화가 있었더라면 그기분을 바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이야기했을텐데 말이지..

엄마가 없는 1달동안 나 진짜 티안내도 될꺼 괜시리 엄마 걱정되게 아침에 엄마 안계신다고 울고 맛도 없는 아빠요리 먹어야돼서 울고 진짜 별에 별걸로 다 엄마 빨리 보고싶다는 티를 냈었어. 철이 안들었던거지 괜시리 엄마 걱정되게 말이야. 엄마한테 기쁜소식인가? 이제서야 말하는건

데 그 한달동안 나 진짜 엄마라는 당연한 존재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 그리고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이는 엄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그 마음 지금도 한치에 변함없이 가졌더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라는 타이틀로 뉴스에도 나왔을텐데.ㅎㅎ 엄마 퇴원하고 그동안 푹 쉬었다며 괜찮은 척 다시꿈 우리를 위해 2713km는 거뜰히도 넘을 거리를 무거운짐을 들고 다시 달리기시작했잖아. 그 쉽없는 엄마의 마라톤은 나를 장학생으로, 가계를 여유롭게, 우리가족이 더욱 견고하게 꿈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의 순간들을 위해 달리고싶어.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만큼 나도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엄마가 나에게 해준만큼 배로 엄마한테 드리고싶어. 아직 앞날은 캄캄하지만 엄마의 희생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컴컴했던 세상에 길을 밝혀줬어, 만약 떨어지게 되더라도 유성이 되어 세상이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가질 수 없음에도 언제나 그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존재하겠지 엄마, 엄마가 빛은 나라는 광원은 과연 엄마와 같이 따스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렬한 빛을 10분의1이

라도 낼수있을까? 이진 잘모르겠지만 그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틀려선 안될 정답이야 엄마. 그 어떤 것보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내가 성인이되면 그누구보다 멋진 아들이되어 올게!

손영준 | 밀성중학교 3학년 | 경남교육감상 수상작 ■

장미 한 송이

잊지 못할 추억,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주신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편지로 선생님과의 추억을 곱씹으며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학업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며 선생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요. 너무 대뜸 감사 인사부터 전했나요? 전 김서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으로 뵈 학생이죠. 그 모범생 말이에요! 늘 저를 그렇게 부르셨죠….

사실 선생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 학교 폭력을 당했었고, 그 뒤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었던 저는 스스로를 가둬두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만의 감옥 속에서도.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열쇠를 내어주신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무한한 애정으로 전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나갔고, 그 뒤에는 전교 부회장 선거에도 나갈 만큼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다시 인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거 공약 발표 직전 앞도 못 보고 무릎만 보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준비는 잘했어?"라고 물어보시고 "잘해 화이팅!"이라고 응원을 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을요.

가끔 초등학교의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었던 과거, 미워했던 과거의 기억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며 웃음 짓던 날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던 날들 등 좋았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 저를 미소짓게 만들고, 뒤늦게 생각나는 힘들었던 기억을 좋았던 기억이 모두 감싸 안고 토닥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꽃인 장미 한 송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더는 힘들게 하지 않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물들이지도 않았으니깐요. 아무런 준비를 못

한 채로 4학년이 끝났을 때, 선생님은 약간의 눈물을 보이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게 선생님과과의 마지막이 될 줄.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이동하셨고, 저도 5학년 중반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결심했으니깐요. 제가 이사하기 전날,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을 뵈고 왔는데, 선생님이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며 저는 잘 지내냐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질 당연히 잊으실 줄 알았는데, 아직 기억해주신다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음 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고 그저 이사 가고 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을 찾아 배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성함, 선생님의 그때 그 당시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선생님의 그 웃음소리, 선생님의 말투 모두 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더군다나 남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지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로부터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을 잘라낼 수 있는 가위를 주셨고,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도 괜찮다는 자존감까지도요. 선생님과 함께 한 4학년이,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이 이 문장 안에 다 담기지 못할 만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어두운 저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환한 밖으로 이끌어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아직도 찾아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등학생이 된 모습을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 지내시죠. 선생님?

모든 연락이 다 끊어버렸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다시

만나리라는 것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전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잘 잊어도 좋습니다. 저만이 선생님과 추억을 기억해도 좋습니다. 전 그 추억을 통해 새로운 저를 찾을 수 있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깐요. 더욱더 그 추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깐요. 이제는 그 추억을 따라가 제가 선생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서미란 선생님, 저와 다시 만날 때까지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초등학생 때 드리지 못한 선물, 선생님과 꼭 닮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들었던 과거가 행복한 과거로 기억할 수 있는
김서연 올림.

김서연 | 용남고등학교 2학년 | 경남교육감상 수상작 ■

꼭 행복하게 살게요

To.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나의 엄마께

안녕하세요, 엄마. 저 큰 딸 민채예요. 오랜만이죠?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엄마의 마지막 계절은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됐어요. 저는 엄마와 제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저에게도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신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아침 일찍 외출한 줄 알고, 급하게 학교에 갔어요. 학교를 갔다 오니 외갓집 가족들이 와 계셨어요. 그날 집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확실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꼈고, 오만가지 걱정을 다 했어요. 아빠가 일찍 집으로 오셔서 엄마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걱정하다보니 커지는 불안감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뭔가 속으론 예상했던 일이라서 어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엄마를 위해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마지막을 따뜻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뻐요. 계속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해서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동안 엄마가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3일간 버텼어요. 그 후에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같이 갈 건지 물어보시는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지 않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 아빠를 따라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를 관에 넣어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엄마와 일상적인 생활이나 웃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와 대화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슬프다는 것에, 저는 생각보다 엄마를 많이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라’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3개월 동안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집 청소나 밥 하는 것을 도와 주셨지만 동생과 제가 학교에 가고 난 후부터는 잘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때부터 청소와 밥에 부족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동안은 몰랐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셨던 것 같아 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마냥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엄마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 엄마가 점점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엄마를 걱정시켜드리긴 싫지만 사실 최근에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저를 제일 이해해주시고 잘 아는 엄마 품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은 고민은 고등학교 입학과 진로 관련 문제인데, 엄마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답해줄 수 없겠지만 아빠와 열심히 상의해서 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엄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

적도 많이 높였어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주세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같이 못 할 것 같아 아쉬워요.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꽃꽂이를 좋아하고, 항상 제가 제일 좋다고 말씀해주신 내 가장 오래된 친구 같은 우리 엄마~! 너무너무 보고싶고 사랑해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의 영원한 큰 딸 민채 드림.

김민채 | 경산여자중학교 3학년 | 경북교육감상 수상작 ■

100억개도 더한 많은 감사

To. 사랑하고 감사하는 엄마에게...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항암치료 후에 머리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니를 쓰고 문 밖으로 나갈 때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때 난 엄마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섭고 싫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엄마를 향한 감사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존재 때문이야.

엄마 냄새, 엄마 목소리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내 눈앞에 계속 있다는 것이 감사 그 자체인 것 같아. 고맙고, 사랑해 엄마!!

그래서 엄마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외로웠어. 하지만 지금, 엄마에게 감사하듯 엄마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 엄마가 병원에 계신 동안 더 챙겨주신 선생님, 할머니, 아빠, 이모들 모두가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많은 감사 속에서도 100개 아니 100억개도 더한 많

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엄마이니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엄마도 봐주면서 쉬어가며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내 옆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또, 이미 용서한 잘못도 꺼내가며 열변을 토해가며 훈육하지만 이 훈육과 잔소리들도 엄마가 내 옆에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귀담아 들을게!!

결국 엄마의 존재에 대한 감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나도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멋진 유습이가 되어볼게! 엄마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줘! 사랑해!!!

이유섭 | | 포항송곡초등학교 6학년 | 경북교육감상 수상작 ■



델피늄이 뭐냐면 파란색~보라색 꽃인데
예전에 제가 꽃말 예쁘다고 한 그 꽃이잖아요!
꽃말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이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델피늄이더라구요
왜냐하면 늘 할아버지가 절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의 델피늄 꽃이 되어드릴게요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좋았었어요

광림초등학교 4학년 안소연

개그우먼보다 더 웃기게
나를 웃겨주는 한 줄기 빛

송의중학교 3학년 김태현

제가 할아버지의
델피늄 꽃이 되어드릴게요

대구파동초등학교 6학년 정민경

고모 영원한 나의 마음이
되어주세요

북동중학교 2학년 김대성

꼬마 시인
가영

대전매봉초등학교 6학년 유가영

제 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채영

건강한 다리로
공원 같이 산책해요

석포초등학교 4학년 곽태인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경원고등학교 이은별(가명)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좋았었어요

To. 외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외할아버지께.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가 하늘의 별이 되신지 1달이 넘었네요. 4월에 엄마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쿵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외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반면 저는 외할아버지께 잘해주지 못했네요.

매일같이 외할아버지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아프지만 앓으셨다면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외할아버지 집에 오면 아프셔서 침대에만 누워 계셔서 같이 놀지 못해 속상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앞에서 장기자랑을 할 때 할아버지가 박수쳐 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하늘의 별이 되기 전에 안아주지도 못했네요. 아파서 요양병원에 자주 계셨죠. 코로나가 잠깐 잠잠해져서 엄마께서 할아버지를 보러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가기 싫어 거부했어요. 잠시라도 할아버지를 보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받기만하고 드리기는 못했네요.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좋았었어요.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오기도 하네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잘 계시죠? 저는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살고 계세요. 저희 엄마도 잘 살고 계시고요.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를 보러가면 비어있는 침대가 참 쓸쓸해 보여요. 그곳에 앉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줄줄줄나요. 할아버지랑 많은 경험을 했었죠. 할아버지가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할아버지 하늘에서 잘 지내시고 행복하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날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외할아버지의손주 소연올림-

안소연 | 광림초등학교 4학년 | 광주교육감상 수상작 ■

개그우먼보다 더 웃기게 나를 웃겨주는 한 줄기 빛

To.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엄마

엄마 안녕? 엄마의 멋지고 착한 아들 태현이야~ ㅎㅎ 엄마! 평소에도 내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편지로 쓰려니 너무 좀 쑥스럽네. 그래도 한 번 편지를 써 내려가 볼게~

음~ 엄마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 냈을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생각 만해도 가슴이 찢릿하고 따뜻해지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단어 같아. 난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쓰담쓰담 해주는 '엄마의 고운 손길' 과 '사랑해'라는 말이 떠올라.

내가 어릴 적부터 자주 많이 아파서 정말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했는데 맨날 아픈 나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 가면서 숨을 헐떡이던 엄마에게 미안하고 항상 엄마 자신이 힘든 것은 잊고 나를 정성스레 돌봐주던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고 더 빨리 낫고 싶어서 힘을 냈던 것 같아.

엄마, 엄마는 내가 힘들어 하거나 지쳐있을 때 나에게 항상 할 수 있다고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으면 '별 일

아니라고' 긍정적인 웃음으로 격려해 주며 정 힘들면 잠시 엄마 등에 기대고 쉬엄쉬엄 쉬어 가도된다고 말해주었지.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별 일 아니야', '다시 한번 달려 나가 보자' 라고 내 자신에게 속삭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 힘낼 수 있었어.

그럼에도 요즘 내게 사춘기가 왔을까! 안 그래야하는 줄 아는데 자꾸만 엄마에게 짜증을 내서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한 것 같아 후회되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럴 때마다 더 많이 안아 주니까 더 미안하고 고마웠어.

엄마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듯 하지 말고 더 예의를 다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 말을 깜박 깜빡하는 것 같아.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봐 ㅎㅎ.

그리고 엄마에게 더 미안하고 고마웠던 건 내가 작년에 마음의 병이 생겨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πππ. 병원에서 강박불안증이란 진단을 받고 나서 평평 울며 세상을 원망하고 충격을 받은 나에게 엄마 "우리 아들은 분명 잘 이겨낼 거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겨내고

나면 더욱 더 성숙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항상 엄마가 곁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날 안아주고 다독여주며 내게 긍정적인 힘을 주었어. 생각해보면 처음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이 더 많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와.

지금도 시시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 와서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떠올라 '난 잘 이겨낼 수 있다. 엄마아들이니까' 수 없이 속으로 외치며 내 마음을 다잡고 버티고 있어.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으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마.

우울감에 어두운 나만의 터널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랬듯 쯤! 하고 엄마가 나타나서 개그우먼보다 더 웃기게 나를 웃겨주는 한 줄기 빛같은 우리엄마, 친구보다 더 잘 놀아주는 우리엄마, 세상에서 제일 착한 천사우리엄마,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늘에 감사

해.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예뻐는데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해서 흰머리도 많고 아픈 곳도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ㅠㅠ

좋은거 맛있는거 나만 다 주지 말고 엄마 몸도 챙겼으면 좋겠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거지! 그리고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올바르게 커서 엄마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나누는 좋은 사람이 될 테니까 꼭 지켜봐줘.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우주보다 더 많이 많이 사랑하는거 알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2021년 5월 5일 엄마곁까지 뽕뽕이 태현이 올림♥

김태현 | 송의중학교 3학년 | 광주교육감상 수상작 ■

제가 할아버지의 델피늄 꽃이 되어드릴게요

To. 우리 할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델피늄 꽃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둘째 손녀 민경이에요 할아버지 병원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편지를 썼냐면요 할아버지께 감사한 거랑 이때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일단 할아버지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그래도 수술 아주 잘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알겠죠? 그런데 저 저번에 할아버지 응급실에 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늘 통화하고 우릴 보고 웃으시던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언니랑 저보고 살만큼 살았다고 하신 게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계속 “민경아, 민경이”라고 중얼거렸다면서요 그때 의식도 없었을 텐데... 또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이만큼 생각하시는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언니 12년, 저를 9년 동안 키우시고 농사도 다 하신다고 어지간

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늘 언니랑 저 먼저 생각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시골에서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마냥 어리던 제가 이젠 6학년이에요ㅎㅎ 3년 전 3학년 때 처음 전학 와서 몇 달 동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젠 잘 울지도 않아요 시골 있을 때 늘 할아버지가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할아버지 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3년 전 할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대구로 갔을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대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날 아들한테 화내기만 해서 안 좋은 모습만 기억되면 우짜노” 근데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할아버지가 제 친구들한테 자두 주시는 것도 잘 때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 말하는 것도 경로당에 가서 언니랑 저 자랑하시는 것도 그리고 병원 갔다가 안 울고 잘했을 때 키즈 비타민 사주시고 장날에 다 식은 폴빵, 옛날통닭, 또 옛날 스타일 하드였지만 우리 좋아한다고 한보따리 사

오신 거 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눈
부시게 빛났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농
사하신 거 나물 한 단에 500원밖에 안 하는데 맨날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고 대구 왔을 때부터는 시골 올 때마다 맨날 만원씩 받아가고... 근데 사
실 할아버지가 밤낮 안 가리고 일해서 번 구겨진 만원은 할아버지의 땀
과 눈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돼서... 할아버지... 그냥 너무 죄송하고 고
마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먹여 살린다고 늘 힘들게 일하시고 우리 먼저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하셨
을 텐데 늘 고생만 하시고..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퇴원하시
면 그때는 할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농사일 조금만 줄이고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알았죠? ㅎㅎ

아 그리고 맨 앞에 to. 우리 할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델피눔 꽃이라고
적힌데 델피눔이 뭐냐면 파란색~보라색 꽃인데 예전에 제가 꽃말 예쁘다

고 한 그 꽃이잖아요! 꽃말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이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델피눔이더라구요 왜냐하면 늘 할아
버지가 절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
버지의 델피눔 꽃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어린 시절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요 그리
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의 지난날을 보면서 환하게 같이 웃어 봐요ㅎ
ㅎ 그게 할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저의 소원이예요... 그러니까 할아버
지 늘 행복하셔야 하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럼 할아버지 제가 너무 사랑
하고 또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2021.6.25. 할아버지께

-우리 할아버지의 델피눔 꽃이 되고 싶은 민경이가-

정민경 | 대구파동초등학교 6학년 | 대구교육감상 수상작 ■

고모 영원한 나의 맑음이 되어주세요

To. 제일 사랑하는 고모에게

고모 현관문 넘어 바깥세상 문을 열면 보이는 계단에 서 있던, 나에게
는 큰 산이던 아빠의 몸쓸 한마디와 돌을 들고 생과 사를 고민하시던 모
습을 어렸던 내가 본 날 나는 무서워 집 안으로 들어와 고모에게 이를 알
렸고 “미안해” 두 귀를 막아주며 내 온 몸을 감싼 온기로 마무리 된 그 날
기억나? 또, 참다 참다 터져버린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가냘픈
손을 잡고 따로 나와 살았었잖아. 그때 고모는 괜찮다고 나를 진정시켜줬
고 나보다 더 속상하게 울어서 나는 그런 고모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
어. 그 후로 나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조금 방황하기 시작했지만 그럴 때
마다 고모가 잘 잡아준 게 생각이 나. 고모란 존재가 없었다면 대성이는
지금쯤 못난이가 됐겠다.

고모 나는 고모가 있어서 매일 하루를 돌아볼 수 있었어. 먹고픈 게 눈
앞에 나타나면 말없이 사와 고모가 먹고 싶었다고 나에게 건네 입 한 번
안 대고 맛있게 먹는 나를 바라만 봤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이 돼주며
나를 길 안쪽으로 서게 하며 이쁜 건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만 데리

고 다니던 기억과 같이 고모는 항상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줬어.

고모 근데 나는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 조금 부러웠던 게 있
었어. 친구 집을 놀러가면 아무렇지 않게 앉은 탁자 위 수저가 6개 이상
이며 집에 붙은 가족사진 말이야. 조금 부러울 뿐이었어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친구들은 나에게 하나뿐인 고모를 부러워했
고 추운 날 하룻길 나를 기다리는 이쁜 고모의 모습을 부러워했을 거야.
어느 정도 혼자 갈 수 있는 나이 초등학교 3학년, 그땐 고모를 힘들게 하
기 싫어서 매일 씩씩한 척만 했어. 나는 내가 7살 때부터 별거하신 부모님
이 빨리 다시 화목한 가정을 차렸으면 한 마음까지도 숨겼어. 그런 모습
을 고모한테 보여주면 고모가 슬퍼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다보니 점점 아
픈 날이 많아졌나봐. 근데 고모는 그런 나를 빨리 확인하고 아플 때면 다
칠라 애지중지 다뤘어 고모의 모든 행동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6학년 때
나는 고모에게 미안하지만 받은 만큼 쌓인 것도 많았나봐. 그때 처음 심
리치료 시작했고 빨리 벗어나 고모랑 다시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나봐 하느님은 그런 나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했어 2020년 1월 엄마와 살던 나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아빠 쪽으로 와서 생활했잖아 고모는 아직 서툰 아빠가 감당이 안 된다며 고모가 6개월 동안 나 키웠을 때가 자기 아들처럼 키워줘서 고마워 고모가 나 힘들 때마다 이야기해줬잖아 “우리 대성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겠다”라며 기도하듯 내뱉은 말이 매년 짐이 되어 돌아왔어 한 날은 입맛이 없어 몹시 허약해지고 정신도 흐트러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잖아.

모두가 날 말렸고 고모도 나를 말렸지만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덕분에 나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고모가 제일 잘 알다시피 조금은 괜찮아지는 중인 것 같아 내 모든 날엔 고모가 없었던 날이 없어 가장 사랑하는 고모 나는 고모가 나 커서 ‘나 모른 척해도 된다’고 가슴 아픈 말을 하지만 그 약속은 어길게요 고모의 머리에 흰 머리가 수두룩하게 생기는 날이 되면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매일 밤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길게요 내가 매일 칭얼했던 것처럼 고모도 그러는 날이 오면 행복한 순간을 드릴게요 이쁜 우리 고모 매순간 건강할 테지만 그렇지 않는 날이 오면 맨날 업어줄게요 삶이 힘들어 혼자 우는 날이 오면 어깨를 두드리며 고모보다 더 서럽게 울게요 고모는 울면 안 돼요 아직 나는 어려서 나를 위한 고모의 행동이 다 보이지 않아 투정만 부려서 죄송해요 가끔은 혼자 피 흘려서 고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미안해요 고모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이쁜 꽃을 원할 때 매일 밤 잠자리에 가득 깔아주고 보석을 원하면 고모의 이쁜 눈동자보다 더 큰 걸 따드리고 행복을 원한다면 고모를 위한 왕국을 만들어줄게요

평상시에 듣고 싶은 말 있었을 텐데 부끄러워 하지 못한 말 이 편지에 남겨보려고 해요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요 고모 영원한 나의 맑음이 되어주세요♡ 눈 떠있는 모든 날까지 사랑합니다

김대성 | 북동중학교 2학년 | 대구교육감상 수상작 ■

꼬마 시인 가영

To. 꿈을 꾸는 법을 가르쳐 주신 조은영 선생님

봄바람이 사랑살랑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벚꽃은 그네 타듯 우리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고요. 개나리는 고개를 내밀어 푸른 하늘을 보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학년 1반 귀염둥이 꼬마 시인 가영이에요.

제 별명이 왜 꼬마시인인지 선생님도 아시죠? 사실 전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해서 일기 대신 시를 자주 쓰곤 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쓴 시를 항상 칭찬해 주셨고 옆 반 선생님께도 보여 주시며 자랑하셨다고 했어요.

“어머, 애는 커서 시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며 친구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후로 친구들이 놀리듯이 꼬마시인이라고 불렀지만 전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시 말고도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백일장에 나가서 상도 받고 지금 저의 별명은 공신이래요. 공부의 신이 아니라 공모전 여신이요.

2018년 여름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고 사람들에게는 무척 더운 여름이었던 해로 기억되지만, 저에게는 키도 많

이 자라고 자신감과 꿈이라는 걸 갖게 해준 잊을 수 없는 해였어요. 아마도 선생님의 칭찬이 가장 큰 영양제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잘 하는 게 뭔지 모르고 딱히 꿈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던 제가 동화작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글을 쓰는 게 그저 재미있기만 하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쓸 수 있게 되면 선생님께 또 편지 보낼게요. 그때까지 예방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웃으며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어느 날, 유가영 올림

유가영 | 대전매봉초등학교 6학년 | 대전교육감상 수상작 ■

제 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5년 전의 나를, 이길레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꼭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마음을 담아 편지를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2018학년도까지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계시던 대전갈마초등학교에 재학했던 '이채영'이에요. 저는 대전갈마초등학교에서 입학하고 대전갈마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감히 선생님과의 추억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보니 딱 이맘때쯤 이었던 것 같아요. 늦봄의 꽃향기에 계절을 타며 생각이 많아져 갈 나이, 막 열두 살이 되어 새 학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였어요. 저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큰 아픔을 겪었어요. 친하게 지내고 의지했던 친구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났고, 반 친구들은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고 티 나지 않게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

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어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지 않고 저의 아픔을 모른 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도저히 그때의 제가 견딜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학교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해 무서웠고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제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았던 저를 교장실까지 데려가 주시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셨어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 해주셨고, 많은 일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학창 시절 이야기랑,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남에게 털어놓았던 제 속마음, 축구를 좋아하던 저에게

선물해주셨던 파랑색 축구공 열쇠고리까지, 모두 다요. 선생님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전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어요. 선생님의 이런 작은 말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리가, 괜찮아질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니 온 세상 모든 것이 제 편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는 제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언제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셨던 부모님도 계시고,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생도 있고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웃으며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좋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원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쁜 꽃들과 푸른 나무들, 맑은 하늘과 따뜻한 공기까지도,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지 않겠어요? 5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했고, 졸업을 했고, 머리

를 짧게 잘라 보기도 하고, 염색도 해 보고, 입는 옷도 달라요.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적응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고작 5년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했던 저를 이렇게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의 저를 만든 것은 분명히 제가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겠지만, 그 중 선생님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훗날 성장한 저의 모습을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소중한 기억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해요. 선생님께 배운 소중한 것들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매일 생각하고 실천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짧지만 가장 빛났던,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선물 받았던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제 2의 인생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며, 제 인생의 가치관대로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갈마인이 될게요!

늦봄이 그리움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날에 드리는 선물, 이길례 선생님께
2021년 6월 8일, 언제까지나 기억되고 싶은 제자 '이채영' 올림

이채영 | 충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 대전교육감상 수상작 ■

건강한 다리로 공원 같이 산책해요

To. 무쇠다리 외할머니께

감사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른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예요. 한 쪽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절뚝거리고 남들보다 느리게 걷지만 70세가 넘는 나이에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외할머니. 외가댁에 갈 때마다 늘 주차장에 마중 나와서 저와 동생을 꼭 안아 반겨주시죠. 코끼리처럼 퉁퉁 부은 할머니의 다리를 보면 속상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표정을 보이면 할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웃으며 말없이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럼 용돈도 참 많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오면 주려고 하나씩 사 모은 보석머리핀과 인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머니가 거실바닥에 짝 펼쳐 주시면 진짜 선물가게에 온 것 처럼 신나요.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어린이날 같아서 정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들게 청소해 버시는 돈으로 사주신다는 걸 잘 알아서 할머니가 주신 용돈과 선물은 부모님이 주신거보다 훨씬 소중하고 값져요. 그래서 더 감

사해요. 여태까지 할머니가 주신 용돈들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제 통장에 저금해놓고 있어요.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 돈 모아서 무릎수술하실 때 보태드리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갈비도 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할머니 힘드신데 일 그만두고 빨리 수술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면 안돼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할머니는 ‘다리가 이래도 일하는 곳에서 할머니 별명이 무쇠다리가. 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니 아냐.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더 벌어야 우리 손녀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넣어주지 느그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 천천히 쉬면서 일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할머니 수술하는 거 무서워서 안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께서는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아낌이 없다. 근데, 자식한테 짐을 주는 건 싫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그말이 저는 이상하게 슬프면서 예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무쇠다리 할머니 저도 할머니
께 받는 사랑 부모님께 나눠주는 사람 될게요. 그리고 얼른 무릎수술 하
셔서 건강한 다리로 저랑 손잡고 할머니가 가고 싶다하신 오륙도 해맞이
공원 같이 산책해요. 내년에는 꼭 수술하기로 약속해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To. 조부모님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못난 글씨지만, 정성을 담아 한 글자씩 꼭꼭 눌러 적어봅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야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두 분. 저는 이제 18살이 되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어진 저희를 받아주셨던 그날의 감사함을 이 곳에 풀어내고자 합니다.

저 멀리 있던 인천에서 부산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에 갈 것이라던 아빠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덜컥 찾아온 저희를, 귀여운 손주들 왔냐며 환하게 반겨주셨을 때의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초등학생이었기에 저는 아직 세상물정을 몰랐으나, 저와 오빠를 보던 눈빛에 동정의 연민이 섞여있던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이혼을 어렸을 때 겪어야만 했던 저희가 안쓰러워 그렇게 저희를 위해 노력하셨던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제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를 위해 힘내셨던 것도, 저를 위해 힘내셨던 것도, 말다툼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저를 걱정하셨던 것도, 저를 위해 잔소리 하셨던 것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하셨던 모든 것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힘쓰셨던 두 분들에게 언제나 늘 전하고 싶은게 있었지만, 언제나 짧은 인사말과 정말 아주 작은 선물밖에 전해주지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손녀인지라,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녀의 하나뿐인 어린 시절과 하나뿐인 10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추억에 남아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착한 손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를 눈치 채지 못하고 늘 짜증만 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말을 가장 적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주시는 사랑하는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나 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래에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두 분, 제 편

지의 글씨는 어떻습니까? 악필이라 보여드리기가 참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어떤가요, 읽기 편하신가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못난 손녀 드림-

이은별(가명) | 경원고등학교 | 부산교육감상 수상작 ■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 위험할 수 있는데
 녹색 어머니 분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신호등에 서계셔서
 저희의 등굣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왔네?”,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잘 챙겨왔네!” 등등
 여러 가지 아침에 사소한 대화가 계속되다 보니
 진짜 제 할머니의 말씀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
 서울북가좌초등학교 4학년 곽라운

매일 아침
 신호등의 할머니
 난곡중학교 1학년 최하리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뿐인 친구
 참샘초등학교 5학년 강동권

오래도록
 제 옆에서 빛나주세요
 장기중학교 3학년 최선주

그래도 난
 잘 지내고 있어
 울산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박주란

텔레파시로
 제 마음을 전할게요
 남산초등학교 5학년 이은채

어두운 바다에서
 혼자 항해를 하고 있는 배
 인천경연중학교 2학년 김효지

선생님은
 저의 보조배터리예요
 인천상아초등학교 5학년 오보민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

To. 나의 왕할아버지께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라운이예요.

조금만 뛰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6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6월이 되니 할아버지 집에서 “애기들 과일 깎아주라” 하시면서 식구들 둘러 앉아 참외, 수박, 복숭아 여름 과일 먹던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 항상 벽에 걸려있던 훈장을 보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6·25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받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그 때 6·25 전쟁을 처음 알았어요. 전쟁? 총 싸움? 그때는 장난감 총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재미있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열아홉살에 삼형제가 모두 전쟁에 나가 각자 다른 곳에 흩어져 서로를 걱정했던 일, 전쟁터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껌껌한 새벽에 샘물을 찾아 마셨는데 다음 날 가보니 시체 주변에 핏물이 섞여 있었던 샘물 이야기, 다리에 총을 맞고 마취제 없이 수술하고 진통제가 없어

서 정신력으로 견디셨다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럼 다친 다리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할아버지는 거짓부렁이 아니라며 총알이 지나간 흔적의 다리를 보여주셨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무섭고 상상도 못 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짜진짜 멋있는 영웅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할아버지 댁 갔었을 때 할아버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밥도 못 드시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희가 가면 꼭 안아주시는 할아버지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엄마한테 왜 그러시는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예전처럼 건강해지시길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애써 일어나셔서 저희를 반겨주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슬픔에 빠져있었고 마법이 있다면 할아버지를 낮게 헤드리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할아버지! 늦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덕에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 같고 제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진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에요.

왕할아버지 사랑해요. 잊지 못할거예요….

매일 아침 신호등의 할머니

To. 녹색할머니 분들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녹색 어머니 분들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신호등에 서계셔서 저희의 등굣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주로 어머니 분들보다 할머니 분들이 주로 매일 계셨는데 오랜 시간 서계시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셨을 텐데 저희의 안전을 위해 계속 신호등 옆에서 등굣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녹색할머니 두 분께 매일 아침 인사 드렸었는데 인사를 서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분들은 무척 좋아하시고 기뻐해주셔서 자랑 동생이 두 배로 더 뿌듯했어요. 자랑 제 동생을 보시고 할머니 손주들이 생각나고 닮았다고 매일 아침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서로 주고받던 따뜻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왔네?”,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잘 챙겨왔네!” 등등

여러 가지 아침에 사소한 대화가 계속 되다보니 진짜 제 할머니의 말씀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매일 아침 신호등에서 할머니를 보고 여러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2년 정도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꼭 한마디씩은 주고받으니 마치 하루의 아침 일상처럼 느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친근하게 서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저는 이러한 일상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는데 2년 뒤 저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집에서 중학교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없어 녹색할머니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는 못 나누지만 초등학교를 가려고 건넌 신호등을 지나며 인사는 주고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중학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반대편이라 저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녹색할머니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원했던 중학교에 배정 받았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녹색할머니 분들과 3년 동안 더 같이 있으라고 이 학교로 보내주신 것 같아 만족하고 아주 재미있는 학교생활 중이에요!

제가 인사드리는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요새 안 보이시더라고요. 혹시나 어디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ㅠㅠ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어요! 다행히도 또 다른 할머니 분은 계속 나오셔서 계속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저를 알아보셨는지 저에게 “중학교 들어갔어?”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네!”라고 대답해드렸어요. 6학년 겨울 방학 때 동안 보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주셔서 저는 오늘 아침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계속 만나지 못한 녹색할머니도 나중에 꼭 다시 만나서 제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from. 녹색할머니 분들께 인사드리는 인사요정 최하리가 올림

최하리 | 난곡중학교 1학년 | 서울교육감상 수상작 ■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뿐인 친구

나의 진정한 친구 승훈이에게

승훈아, 참으로 반갑다. 나는 너의 친구인 강동권이라고 해. 2학년 첫날부터 너는 누구보다도 나를 아껴줬어.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언제나 화살처럼 내 마음을 꿰뚫고, 총처럼 재빠르게 나를 도와주면서 빛처럼 나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지.

또 다른 사람이 나보고 둔하다고 했을 때, 너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방패처럼 나를 보호해주었고, 청소기처럼 나쁜 것들은 흡수하고 채석기처럼 좋은 것들만 나에게 주었지. 그것뿐이겠니? 내가 외로울까봐 집까지 데려다주기까지 했잖아? 그러고서도 정작 나는 너에게 요구르트 한 잔밖에 주질 않았지.

승훈아, 근데 그거 아니? '투과'라고 말이야. 투과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들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유리를 통해 통과한 후에는 그게 다시 우리 눈으로 반사되지. 내가 빛이라고 했을 때 넌 언제나 나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유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준 것을 작은 가치로 만들어 돌려주었어. 이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에너지가 더 줄어들어. 그러니 너의 에너지는 내 에너지 때문에 손실을 본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난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가족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 친구이구나.'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때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하나뿐인 친구가 되어있을 거야. 그럼 그 때 보자. 안녕

나의 진정한 친구

빛처럼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통과했다가도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진정한 친구

해 주는 것보다도 못한 값을 받으면서 일하는 진정한 친구

자신에게 불리하고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진정한 친구

매번 고생을 해도 말없이 웃기만 하는 진정한 친구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진정한 친구
악을 비판하고 선을 찬양하는 진정한 친구
때가 되어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며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쁨의 눈물로 얼굴을
가득 메우고 세상과의 이별을 즐겨 제 때 떠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다

강동권 | 참샘초등학교 5학년 | 세종교육감상 수상작 ■

오래도록 제 옆에서 빛나주세요

To. 지구의 북두칠성, 아빠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빠도 기억하세요? 묵묵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시며 언니와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를 낳고 키운 것만큼은 후회 없다는 그 말씀에서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순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아무도 깨지 않도록 조용히 혼자 준비하시고 문 밖을 나서시는 아빠. 저는 늘 그런 아빠를 보며 제 모습을 반성하곤 해요. 당연하게 학교를 가는 순간마저 귀찮아하며 주저했던 저를 자책하기도 해요. 아빠도 물론 아침이 달갑지만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도 두 딸의 아빠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발길을 이끄시는 아빠를 만나게 되고 함께 하게 된 시간들에서 후회와 실망은 전혀 없어요. 오직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의 대부분의 지식은 학교로부터 얻게 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지식은 아빠로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아직 아빠의 지혜를 다 배우려

면 한참 멀었지만 말이에요. 아빠만의 북두칠성인 스승님께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버티고 서야 된다는 순간이 제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루하루 아빠께 홀로 서는 방법을 배우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게도 홀로 설 용기가 생기겠지요? 아빠의 품이 따뜻해서 포근해서 당연하고 익숙해버리게 되어 버렸지만 스스로 헤쳐나갈 순간도 오겠지요. 그렇지만 아빠께 배운 이 지혜들로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처음 세상에 홀로 첫 걸음을 내딛으셨을 때 두려우셨나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빠께도 처음이라는 순간이 쉽게만 다가오지 않으셨을텐데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자 부모로 성장하셨다는 점이 놀라우면서도 존경스러워요.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아빠에 대한 감사함이 다른 방향들로 번져나가요. 어릴 적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였던지라 ‘날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생이 되자 돈을 벌어주시는 것에 처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양한 면들에서 자주 감사함을 느껴요. 저의 부족한 부분도 사랑해주시고 감싸주시는 점, 제게 많은 관심을 쏟아 부어 주시는 점... 막상 손으로 써내려 가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느낀 순간들 모두를 아빠께 전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아빠께 이 감사함을 느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이 감사함을 전하고 표현해 나갈 거예요.

항상 제가 아빠보다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주셔서 감사해요. 오래도록 제 옆에서 빛나주세요.

최선주 | 장기중학교 3학년 | 세종교육감상 수상작 ■

그래도 난 잘 지내고 있어

To. 천국에서 보고있을 소은이에게

소은아, 잘 지내? 이렇게 편지를 쓰려하니 엄청 떨린다. 거긴 어때? 갑갑한 병실보다는 훨씬 낫지? 난 네가 내 곁을 떠난 뒤로 매일이 허전했어. 처음에는 네 부재가 믿어지지 않아서, 스스로에게 네가 숨을 쉬지 않는게 아니라고 얼마나 되뇌었는지 몰라.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정신이 들더라.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다는게 피부로 느껴지는게 너무 무서웠어. 늘 밝던 소은이 네가, 내 앞에서 환히 웃던 네가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나봐.

어제, 그러니까 5월 19일, 네가 암관정을 받은 재작년 여름, 그 전날까지도 우린 분식집에서 떡볶이 2인분을 시켰지. 넌 3인분을 시키자 했는데 내가 남길 것 같으니 2인분만 시키자 했잖아. 그때 그냥 3인분 시킬 걸 그랬나봐. 네가 떠난 지금에서야, 난 혼자 우리가 가던 그 분식집에서 다 먹지도 못할 3인분을 사가곤 해. 웃고 떠들다가, 네가 어지럽다고 휘청거리자 난 바보같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웃었지. 그 웃음이 아직까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에 편지를 쓰는 지금도 스스로가 미워져. 네가 바닥에

쓰러지고 난 119에 신고했고 넌 식지도 않은 떡볶이와 나만 남겨둔 채가 버렸지. 그렇게 널 병원으로 보낸 뒤 얼마나 지나서였을까, 며칠은 지났던 거 같아, 너희 어머니께 네가 암 관정을, 그것도 말기관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머리가 하얘져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있었어. 엄마가 네게 갈 수 있도록 날 일으켜주셨기에 난, 네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난 네 병실 문을 열 수 있었어. 사실, 네게 말은 못 했지만, 당시의 나는, 네 온몸에 퍼진 암이라는 놈에게 널 내어주어버린 소은이 널 보기 싫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볼 수 없었지. 네가 누워서 간신히 눈만 뜨고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을 때면, 그 모습을 보면. 네가 아픈걸 인정해 버리는 것 같았거든.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서, 넌 겨울의 싸락눈처럼, 19일에 숨을 거두었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눈물도 안 나다가, 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분식집에 갔을 때, 폭포수처럼 흐르더라. 그 이후에 너랑 추억을 남겼던 곳에 가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가슴이 미어져 오

고 코가 시큰거려. 그래도 난 잘 지내고 있어. 넌 사라진게 아니라 천국에
서 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 속에는 네가 여전히 살아 숨 쉬니까,
강소은! 내가 보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아! 나 여기서 아직 마치지 못한
삶과 그리고 네가 남긴, 강소은의 살 뭉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네
곁에 갈 때가 되면 널 만나러 갈게. 보고싶다. 소은아. 사랑해!

-너와 8년 우정,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친구 주란이가-

박주란 | 울산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 울산교육감상 수상작 ■

텔레파시로 제 마음을 전할게요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 뿐인 딸, 은채예요. 엄마께 처음으로 적는 편지네요.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아직도 얼마 전 엄마가 대학병원에 입원 하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엄마가 가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곳곳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오실 때 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암을 치료하는 대수술이라서 많이 아프셨을 텐데 엄마가 저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앞으로는 울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엄마, 몸도 많이 아프신데,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집안 일에 조금 서툴지만, 믿어만 주세요. 힘들면 저에게 힘들다고 조금 도와달라고 말도 해 주시고요. 저는 설거지도 잘 하잖아요. 청소도 몇 년 동안 했는데. 저한테 맡기셔도 돼요. 전에는 하나 뿐

인 딸에게 무엇이든 해 줄 수 있는 ‘엄마’ 였지만, 이제, 하나 뿐인 엄마께 ‘제’가 무엇이든 해 드릴게요.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청소와 설거지도 꼬박꼬박 제가 할게요. 저만 믿어보세요. 제가 누구인데요. 엄마의 하나 뿐인 딸을 믿어보세요.

앞으로는 엄마의 걱정이 저 자신을 잘 관리할게요. 공부도 엄마를 챙겨드리는 것처럼 꼬박꼬박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저는 엄마를 위해 달리고 달리는 멋진 엄마에 멋진 딸이랍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인생 목표이자 오늘의 목표예요. 엄마, 사랑해요. 덕분에 많은 고비를 넘겨왔잖아요. 엄마도 저로 인해 ‘건강’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안전하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따서 드릴 수 없지만, 제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 짧은 마음의 편지로 제 마음이 엄마께 전해졌으

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많은 것을 이겨온 가족이기에
저도 엄마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저도 가족의 한 명으로써 엄마가 저를 믿
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믿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엄마의 건강 모
두를 책임지고 지킬 거예요. 지금은 텔레파시로 제 마음을 전할게요. 뚜
뚜루뚜뚜 뽕뽕! ㅇㄱㅁㅁㅁㅁ 사ㅁㅁㅁㅁ ㅇㅎㅁㅇㅇ~♥

-어느 더운 봄 날, 하나 뿐이자 영원한 딸, 은채 올림

이은채 | 남산초등학교 5학년 | 울산교육감상 수상작 ■

어두운 바다에서 혼자 항해를 하고 있는 배

To. 중학교 생활의 봄날을 선물해 주신 신정숙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선생님 반의 학생이었던 효지예요. 벌써 꽃이 피는 3, 4월이 지나고 여름을 준비하는 5월이 되었네요. 선생님께서는 즐거운 5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선생님을 알게 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선생님께서는 저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처음 중학교 등교를 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기분이 생생해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등교를 했지만 열이 나는 바람에 선생님의 얼굴은 10초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는 그 한 해가 굉장히 걱정되었어요. 중학교의 시작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반이 다시 등교하는 2주 후에는 열이 나지 않아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면서 갔지만 같은 반인 친구들은 이미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어서 제가 낄 틈은 없어 보였어요. 남들은 다 아는 것을 나 혼자 모르고,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같

은 반이 아니었기에 우리 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는 것도 아니어서 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걸돌고 있었죠.

저는 그때 어두운 바다에서 혼자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바다위를 떠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로 전학을 갈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선생님이 정처 없이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저에게 등대가 되어주셨어요. 비록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중학교를 잘 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낮았던 자존감도 조금씩 높아졌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인지 1학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도전해 보았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했던 옛날의 저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많은 것을 도전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선생님 덕분에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1월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어요. 선생님처럼 좋은 분을 코로나가 있는 해에 뵙게 되어서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해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운 마음보다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은 6년 동안 다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학년이어서,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만약 이 1년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중학교 생활을 망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중학교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전학 가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감과 용기도 생겼죠. 지금 제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작년에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셔서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을 뵙고 나서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선생님을 만나게 된 저는 엄청난 행운아인 것 같아요. 1학년이 끝나고, 저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중학교 생활의 봄날을 선물해 주시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신정숙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지 올림-

김효지 | 인천경연중학교 2학년 | 인천교육감상 수상작 ■

선생님은 저의 보조배터리예요

To. 내 마음 얼음. 땡! 해주신 유혜연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제자 오보민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헤어진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과 추억은 제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음장애 때문에 발음치료를 하고 있어서 많이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1-2반 유혜연 선생님을 만나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표를 하려 하는데 한 친구가 바보처럼 말하면서 왜 발표를 하는 거야?라고 놀릴 때마다 내 마음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퐁퐁 얼어붙어 얼음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괜찮아 보민아 천천히 네 이야기를 해보렴 넌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럴 때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내 마음의 얼음이 녹았어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씀 한 마디에 저는 지금 용기 내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로 반장이 되어 모든 친구들에게 좋은 리더로 생활하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

과 따뜻한 위로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에 쌓여있던 제가 용기를 가지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매일 힘이 되시고 응원해주시는 선생님은 저의 보조배터리예요.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저를 충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게요. 선생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저도 늘 선생님의 하루하루를 응원할게요. 건강하시고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1년 6월 13일 오보민 올림

오보민 | 인천상아초등학교 5학년 | 인천교육감상 수상작 ■



지금까지 엄마의 하늘에
 먹구름이 자욱하게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는 엄마의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해가 비추도록,

지금까지 엄마의 길에
 낙엽만 가득하고 쓸쓸했다면
 앞으로는 엄마의 앞길에
 꽃들이 가득하고 따뜻하도록

내가 더 잘할게..

할머니의 손길과
 따뜻한 품속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10학년 신이정

먼 훗날
 또 함께 그림 그려요
 충남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예원

가장 많이
 고마운 사람
 공주중동초등학교 3학년 장지용

난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안내초등학교 2학년 송준형

내 기억들과 추억들은
 다 아름다웠어
 용성중학교 1학년 김수현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햇빛
 여수진남초등학교 5학년 문희진

우산을 씌워주시는데
 부모님의 어깨
 백제고등학교 2학년 이승민

엄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평초등학교 6학년 조세리

사계절 나의 등하교를
 책임져주던 선생님
 전주곤지중학교 1학년 신예은

어두운 밤에 무너지려고
 할 때 한줄기의 빛
 도련초등학교 6학년 이다연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햇빛

To. 세상에 하나뿐인 문씨네 임금님 우리 아빠께

아빠! 우리 아빠! 세상에 하나뿐인 내 사랑 우리 아빠! 아빠! 제가 삼혜원에 입소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빠’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맺혀요. 그래서 가끔은 삼혜원 엄마들이 저에게 울보라고 놀리기도 해요.

아빠는 저에게 그림자 같아요. 제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처럼 제 뒤에서 위로해주시잖아요.

아빠, 저도 초등학교 5학년이라 아빠의 커다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부끄러움이 많은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햇빛이라는 걸 이제는 저도 알아요. 햇빛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가끔 구름 뒤에 숨지만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걸 잘 알거든요.

사실은 작년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해주셔서 ‘아빠가 날 조금 사랑하나?’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2살이 되어보니 말로만 하는 게 꼭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먼저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면 아빠도 작은 목소리지만 “나도 우리 딸 사랑해” 라고 말해주시잖아요. 전 그런 말을 해 줄 때마다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빠, 사실은 2년 전 제가 삼혜원에 처음 희준이랑 입소했을 때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고 시설에 오게 돼서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빠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느라 잠시 우리를 삼혜원에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삼혜원 엄마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기까지 저도 2년 정도가 걸렸으니 아마 내 동생 희준이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아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 6월인데도 정말 너무 날씨가 더워요. 7월이면 지금보다 훨씬 폭염이 오겠죠? 더워진 날씨에 아빠가 땀 흘리면서 일하실 걸 생각하니 눈물이 조금씩 나오네요.

그래도 아빠 딸 희진이는 울지 않을 거예요. 아빠! 제가 자주 ‘감사한

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은 못해도 제 마음 알죠?

(아빠 닮아서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마음속으로는 최고로 사랑해요 ♡)

-아빠를 해수욕장 모래 알갱이만큼 사랑하는 희진 올림-

문희진 | 여수진남초등학교 5학년 | 전남교육감상 수상작 ■

우산을 씌워주시는데 부모님의 어깨

제목: 나의 우산

제 삶에 소나기나 이슬비 같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저의 어깨와 옷을 축축하게 만들 때 슬그머니 나타나서 비를 가려주는 우산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 저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저를 잘 알고 항상 저를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저에게 우산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몇 줄 안되는 글로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께 감사한 일과 어머니께 감사한 일 그리고 저의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학교에 오셔서 저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시고 비가 오는 날이나 몸이 좋지 못한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필요한 우산이나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항상 무뚝뚝하게 말을 하여도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말을 해주시고 항상 저의 기분 먼저 생각해 주시며 제 작은 이야기마저 가장 크게 공감해

주시며 제가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등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시험기간에 당이 떨어질까 봐 가방에 사탕과 초콜릿을 넣어두셨는데 한 번도 간식들이 가방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챙긴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물결쳤어요. 그리고 항상 제 컨디션에 맞게 척척 준비해 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쓰던 물건이 다 떨어져갈 때쯤에 제가 미리 찾기 전에 새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늘 늦게 들어오는 저를 기다리다가 얼굴을 보고 잠드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 한편이 시큰거렸어요.

한 번쯤은 아니 하루쯤은 기다리지 않고 잠자리에 먼저 들어가실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러시지 않고 일을 끝마쳐 힘든 몸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

여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알고 나니 항상 늦게 들어와 무뚝뚝하게 한 두 마디 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저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시면서 포기하며 살아오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하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또 감사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일을 저를 위해 그렇게 단번에 포기하신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소나기나 이슬비가 내릴 때 우산을 씌워주시는데 부모님의 어깨가 젖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저에게 우산을 기울이실 때 정말 감사했어요. 나중에 부모님 우산이 구멍이 뚫려 비가 조금씩 스며들 때 저도 똑같이 부모님의 튼튼한 우산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힘든 일을 숨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부모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에게 우산이 되어주시고 다른 경우엔 햇빛가리개가 되어주셔서 감사

하고 지금부터 제가 부모님의 우산이나 햇빛가리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되어드릴게요. 항상 언제나 제 편이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부모님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제 부모님의 앞날이 항상 행복한 날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승민 | 백제고등학교 2학년 | 전남교육감상 수상작 ■

엄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To.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엄마

엄마 학교에서 감사편지를 쓰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써요. 제가 평소에 애정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엄마를 대하잖아요. 다른 딸들처럼 애교 있는 딸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엄마는 저를 남들보다 더 일찍 낳으셨잖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시면서 어렸을 때 꿈이 요리사였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를 일찍 낳고 키우시면서 엄마가 많은 것을 잃으셨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마도 어렸을 때는 저처럼 하고싶은 일이 많았을텐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특히, 엄마는 베트남에서 계속 사시다가 저를 키우기 위해 낫선 한국으로 와서 땅콩, 밤을 팔아 돈을 모으시고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 다치시고 했던 걸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투덜대고 화만 내고...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미워져요.

엄마가 힘드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몰래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제가 우는 모습에 엄마가 더 마음 아파하실까봐 꼭 참았어요.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무뚝뚝한 딸이라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보시기에 아직 어리지만 이제 엄마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엄마한테 혼나거나 다툼 땀 정말 외롭다고 느끼고 속으로 슬픔을 삼켰지만 이제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해하게 되어서 도리어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드나봐요. 엄마,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형제가 없으니 어떤 때에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제가 대회에 나가서 상장을 받아오면 축하한다며 웃어주시면 힘이 나요! 제가 엄마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기도 해요. 저는 엄마의 위로와 칭찬이 제부적 같아요.

엄마, 제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조세리 | 이평초등학교 6학년 | 전북교육감상 수상작 ■

사계절 나의 등학교 책임져주던 선생님

To. 초등학교에 계신 등학교 도우미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졸업생 예은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계셨으니까 벌써 도우미 선생님을 뵈는 지 대략 9년이네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항상 인사해주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도 모르구요.ㅋㅋ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뒤늦게라도 알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선생님께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의 등학교를 책임져주셨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을 때 쓰고 가라며 선생님이 쓰고 계셨던 우산을, 봄에는 새학기가 시작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사해주시고 여름에는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학생들을 걱정해주시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들을 치워주시고 겨울에는 학생들이 미끄러질까봐 눈을 치워주시며 저의 9년의 사계절동안 등학교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온 날 다음날에는 어디 아팠냐며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일상이었던 선생님과 인사할 때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하지 못해서 슬퍼요. 그래도 저번에 친구와 초등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을 뵈고 인사를 드려서 다행이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할 때 선생님이 다음에 또 오라고 말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간 9년 동안의 선생님과 추억이 생각나고 이제는 선생님을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선생님!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다음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비타500 박스 채로 들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꼭 계셔야 해요! 갑자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네요.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런가봐요ㅋㅋ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 2021 졸업생 예은이가

신예은 | 전주곤지중학교 1학년 | 전북교육감상 수상작 ■

어두운 밤에 무너지려고 할 때 한줄기의 빛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그 누구보다 좋고 따뜻하신 저희 엄마에게 편지를 남길 딸 이다연이에요. 엄마, 엄마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엄마를 영웅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돌에 박아 병원에 간 이야기를 엄마가 이야기해주셨죠? 엄마는 절 지키기 위해 구급차는 오기에 시간이 걸리니 죽을힘을 다해 뛰고, 그 덕분에 전 살 수 있었고, 그 말고도 전 여러번 죽을 뻔 했지만 절 다시 구해주신 엄마는 알려지지 않은 슈퍼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엄마에게 혼났을 때 엄마를 속으로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엄마는 다시 절 용서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어느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절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은 엄마, 단 한명밖에 없었어요. 그 날 기억해요? 제가 친구와 싸워서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얘기해줬던 그날이요. 엄마는 제게 용기라는 나무와 위로라는 뿌리와 할 수 있다는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 아시죠? “다연아, 넌 말을 참 예쁘게 잘한다. 너는 너 잘못을 알

고 친구에게 네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또 그때의 오해를 얘기하고 풀려는 너의 모습이 참 예쁘다.”라고 엄마가 해주신 말들이 제겐 용기가 됐고,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은 좋게 풀렸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엄마에게 상처만 주던 철없는 딸이었는데 엄마는 항상 저에게 좋은 것들만 베풀셨네요. 이젠 엄마가 좋은 것만 받고 행복할 일만 남으셨어요. 저에겐 한없이 다정하셨고 친구 같았던 우리엄마.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13살 딸이지만, 엄마로 인해 전 행복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늘 잘한다, 우리 딸이 최고야, 항상 응원해, 사랑해, 잘 자 이 말들이 저는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에요. 제가 어두운 밤에 무너지려고 할 때 한줄기의 빛처럼 다가와 일으켜준 엄마처럼 저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누가 엄마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엄만 충분히 잘하고 잘해왔어요. 앞으로 제가 용기를 줄게요, 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다연 | 도련초등학교 6학년 | 제주교육감상 수상작 ■

할머니의 손길과 따뜻한 품속

나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할머니께

상쾌하고 맑은 공기, 킁킁한 거름 냄새, 아침마다 들려오는 닭의 울음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이정아 얼른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세수해!” 잔소리

할머니!! 기억나세요? 저는 담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가끔 그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아토피가 큰 공을 세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담양으로 내려갔고, 그 병은 제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 힘들 속에서 저는 지금 느끼는 행복과는 또 다른 새롭고 소중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 뒤의 즐거움은 달콤하다는 말. 고통을 겪고 뒤따라오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했어요.

남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아토피가 심했던 저를 무려 4년간 시골에서 키우셨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이 항상 쳐다보고, 주변에서는 괴물이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심지어 간호사 선생님들마저 저를 피하려고 했었죠. 그럴 때 할머니는 제가 뭐라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제를 구하러 다니시고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저에게는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네요. 아토피는 완벽히 낫기 어렵다는데 ‘괴물’이라고 불렸던 제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가 되었어요.

제 피부가 점점 나아지고 아토피는 사그라들고 있을 때 할머니의 피부에는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었죠. 그 주름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노고와 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저 짐까지 할머니께 짊어지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4살 즈음에 동생이 태어나고 분당으로 할머니와 올라갔었죠. 부모님이 맞벌이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머니가 저의 생떼를 다 받아주시고, 밥, 간식도 챙겨주시고... 심지어는 집안일까지도 도와주셨잖아요. 엄마 아빠와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지만 또 할머니와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했어요.

누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답하고 싶어요. 무용 전공할 때 예중 입시 준비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고 하루 종일 훈련에만 매진했어야 했죠. 그 당시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찾아온 슬럼프와 우울함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정말 많이 버거웠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힘든 시기는 그저 네 인생의 쉽표 정도일 뿐이야. 너는 분명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우리 손녀가 꼭 그럴 것 같은데?”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또 2017년의 저는 제 생일을 혼자 보내야 했어요. 아무도 제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중 입시 시험이 딱 한 달 남아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예민했어요. 하필 생일날에 무용 레슨하면서 선생님께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 버티면서 겨우 레슨을 끝냈죠. 다음 레슨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문자가 하나 와있더라고요. 할머니였죠. “우리 이정이, 많

이 힘들지? 생일 축하한다~~ 시험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손녀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울음이 안 나올 수 없었어요. 하루동안 받은 서러움 때문에 그냥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어요. 할머니 품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아무도 제 편은 없는 기분이었고 털어놓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제 친구이면서 열쇠같은 분이셨죠.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할머니께 달려가면 친구처럼 따뜻하게 공감해주시고 다 이해해주셨죠. 가끔은 열쇠처럼 해답을 찾아주셨고 그것은 지금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아프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씀.” 지금까지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어리석은 사람만은 되지 말자’고 항상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길과 따뜻한 품속이 저의 물리적인 병을 낫게 해주셨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주셨어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효

과 좋은 약보다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약 같은 존재가 될게요.

비록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할머니!! 제가 성공해서 보답해드리는 날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건강하시고 이젠 제가 안아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장녀 손녀 신이정 올림.

먼 훗날 또 함께 그림 그려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리운 두글자, 경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까지 늘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선생님. 아직까진 제 인생의 전부인 19년 중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와 주셨네요. 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춘기 시절을 지나 어느덧 사회에 나가기 직전인 고3에 와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땐 장난기 많고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1년, 2년 계절을 새로이 거듭하며, 어느새 저에게 선생님은 너무나도 크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계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을 거쳐 성장했던 수많은 제자들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러니 그날, 선생님의 장례식날 스무명 남짓한 언니 오빠들이 그리 서럽게 울었던 거겠죠.

저의 삶에 대부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나아갈 지도를 펼쳐주신 단 한 분. 경쌤. 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어엿한 고3이 될 수 있었어요. 미술의 꿈을 접지 않도록 항상 조언과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모진 말도 서슴없이 하시며 제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움직일 힘을 주셨죠. 또 말하고 싶은 건

참지 말고 뭐든 말할 수 있게 ‘궁금한 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물어볼 것’이라는 신념을 주셨어요. 때로는 오글거리는 말도 하고 전 어색하다며 질색했지만 제자들을 위한 사랑을, 무한한 믿음과 애정을 보여주신 스승님, 받기도 과분하고 행복한 그 모든 관심과 사랑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주신 관심과 애정들을 안고 이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갈게요. 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보다 존경하고, 친구처럼 편하고 가깝고 친근했으며 때로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이셨던 경쌤. 이 두 글자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올라오는지.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붙잡고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가장 흔들렸던 시기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꿈에 찾아와주신 것도요. 몸도 마음도 건강히, 아프지 말고 편히 쉬고 계세요. 먼 훗날 또 함께 그림 그려요. 사랑합니다. 경쌤.

김예원 | 충남예술고등학교 3학년 | 충남교육감상 수상작 ■

가장 많이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오늘은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날이래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빠에게 쓰기로 결정했어요. 가장 많이 고마운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해주었던 아빠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우리 아빠.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우리 아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약사가 되었던 우리 아빠. 그런 아빠가 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어딜 가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알고 사주셨죠. 사달라고 갖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지만 어떨 땐 조르기도 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깜짝 놀라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런 아빠가 내가 아홉 살이던 가을에 너무나 빨리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었죠. 너무 갑자기여서 놀라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아직 어린데.. 동생은 더 어리고 엄마도 외국인이라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힘을 내서 잘 견디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고모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슬퍼요. 엄마도 나랑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시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는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아빠, 사랑하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엄마도 나랑 동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셨던 거 꼭 기억할게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아빠에게 못해준 거 다 해결게요. 아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장지용 | 공주중동초등학교 3학년 | 충남교육감상 수상작 ■

난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영진이 형아에게

형아는 내가 태어나길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다면서? 엄마가 얘기해줘서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태어나면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줄 거라고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다고 말이야. 내가 태어났을 땐 형이 신나서 유치원 친구들에게 동생이 태어났다고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때 형은 참 많이 용감했던 것 같아. 나왔다면 아마도 아기가 너무 작고 못생기고 시끄럽게 울어서 골치가 아플거라고 생각했을텐데. 분명 내 장난감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망가뜨릴 것이 뻔하고 말이야.

형! 우리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반에 형이 있는 친구는 나 말고는 없어. 나에게도 형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재미있는 장난감과 책이 많이 있었지. 그것도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형과 나는 쌍둥이도 아닌데 취향이 정말 똑같은가봐.

그리고 형은 내가 태어나기 전, 형의 약속처럼 정말 내 머리도 감겨주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지. 물론 지금도 라면도 끓여주고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줄때면 가끔은 형이 내 전속 요리사 같기도 해. 정말 형은 약속도

잘 지키는 멋진 형이야. 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4년을 형이랑 스쿨버스로 같이 학교에 갔었는데 9살이 된 지금은 나 혼자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 내가 중학생이 되면 형이랑 같이 52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 항상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내가 가끔 형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형 항상 고맙고 사랑해

형의 하나뿐인 동생 준형이가.

송준형 | 안내초등학교 2학년 | 충북교육감상 수상작 ■

내 기억들과 추억들은 다 아름다웠어

To. 사랑하는 엄마

엄마 안녕, 나 엄마 딸. 학교에서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쓰기를 한다는 데 '감사'라고 하면 엄마가 제일 떠올라서,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적어볼까 해. 내가 평소에 표현도 잘 못하고, 감사하다고 말한 적도 많이 없어서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떻게 말을 해야 내 진심이 다 전해질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열심히 적었으니까 예쁘게 봐줘 :)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기억 중에 엄마가 없었던 날이 없었어. 그 말은 엄마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말이겠지? 가정에 무책임한 아빠 때문에 엄마도 많이 힘들고 피곤했을텐데 내가 아빠의 빈자리를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키우고 싶어서 항상 하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곳, 다 해주고, 사주고, 데려가 준 거라는 거 잘 알아. 정말 너무 고마워. 결국 아빠랑 이혼하고도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이 어렵고 지쳤을텐데도 내 앞에서 내색 안 하고 항상 웃는 모습,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엄마가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알지 못했고 여전히 다 알지 못해. 하지만 엄마가 내 앞에서 웃

는 모습,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내 기억들과 추억들은 다 아름다웠어. 그것도 정말로 고마워. 엄마라고 해서 다 희생할 필요도, 그래야 할 의무도 없는데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못할 것 없다는 듯 살아와서, 난 그게 너무 미안하고도 너무 고마워. 그런 것도 여태껏 모르고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딸이 뭐가 예쁘다고 신경써주고 사랑해주고 지원해줬는지... 내가 못한 딸이라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돌려주지도 못하는 딸이라서 미안해. 그리고 그런 날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하자.

지금까지 엄마의 하늘에 먹구름이 자욱하게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는 엄마의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해가 비추도록, 지금까지 엄마의 길에 낙엽만 가득하고 쓸쓸했다면 앞으로는 엄마의 앞길에 꽃들이 가득하고 따뜻하도록 내가 더 잘할게.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나가자. 엄마는 언제나 나의 아름다운 기억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나의 든든한 지원

군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나의 따뜻한 등지였어. 이제는 내가 엄마의 힘이 되어줄게. 엄마의 희망이 되어줄게. 엄마를 향한 나의 진심과 감사함을 '고마워'란 세 글자에 담기는 턱없이 부족해. 엄마는 나에게 있어 그만큼 감사한 사람이야. 어떻게 나의 커다란 진심을 '고마워' 이 세 글자에 다 담을 수 있겠어. 그래도 엄마, 내가 항상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또 내가 항상 너무 사랑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말이라도 부디 내 진심이 엄마한테 잘 전해졌기를...

- 엄마 딸 수현 드림 -

김수현 | 용성중학교 1학년 | 충북교육감상 수상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